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과테말라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과테말라 공화국(Guatemala)
면적	108,889 km ² (자료원 : 과테말라 통계청, 2022년 4월 기준)
수도	과테말라시티
민족(인종)	
언어	스페인어(기타 약 21개의 마야 토착언어 및 2개의 원주민어 존재)
종교	가톨릭(47%), 기독교(40%) 및 기타 토착 종교
기후	아열대성(단, 수도 과테말라시티의 경우 해발 1,500m의 고산지대로 연평균 20~22도의 상춘 기후 형성)
국가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통령 : 알레한드로 자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 취임일: 2020년 1월 14일(임기: 4년)○ 부통령: 기예르모 카스티요(Guillermo Castillo)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교민 수

국교 수립일

1962-10-24 (자료원 :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대사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무역협정	1978-04-28	양국 무역 통상, 최혜국 대우와 관련된 내용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문화협정	1978-09-18	양국 문화 교류 협력과 관련된 내용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투자증진 보호 협정	2002-08-17	투자활동 촉진 및 투자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협정	2002-08-09	EDCF 자금 공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2003-12-17	외교관/관용 여권 비자 면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	2006-02-20	양국간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일반사증 면제협정	2007-10-04	일반여권 비자 면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2015-09-16	양국간 운전면허 상호 인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2019-08-20	한국의 무상원조 전담기관의 과테말라 내 법적 근거와 지위 보장 등	2019년 9월 우리 국내 절차 완료, 현재 과테말라 국내 절차 진행 중임. 세부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한국교민 수

7,000 명 (자료원 : 외교부 홈페이지, 2021년 12월 기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과테말라는 1962년 10월 24일 한국과 정식으로 수교하고 1974년 9월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을, 1977년 7월에는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을 개설했다. 더불어, 과테말라는 북한과도 2007년 9월 26일 수교하였으나, 과테말라에 별도의 상주 공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주멕시코 북한대사관이, 과테말라는 주한 과테말라대사관이 이를 겸임하고 있다.

경제

과테말라는 파나마와 함께 중미 6개국 중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다. 한국은 과테말라와의 교역을 통해 꾸준히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으며, 반대로 한국계 투자진출기업들은 과테말라 봉제산업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과테말라섬유산업협회(VESTEX)에 따르면 과테말라에는 약 150개에 달하는 한국계 봉제업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준 약 1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13억 달러 상당의 물량을 수출했다. 이는 과테말라 대미수출의 약 30%를 차지하는 금액일 정도로 우리 기업의 현지 경제 기여도는 매우 크다. 다만 근래 들어서 한국-과테말라 양국 간 교역량은 수출입 통틀어 감소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과테말라 정부가 조업 시간 중단,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고 과테말라 섬유산업의 주요 바이어인 미국에서의 소비 위축으로 과테말라의 섬유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2021년에 들어서면서, 세계 공급망 재편, 아시아 지역의 코로나19로 불안정한 조업 환경, 미국 경기 회복으로 주문이 늘어나 조업 활동은 호조를 이어가며 투자를 늘려가는 추세이다. 특히, 그동안에는 아시아산 원사 및 원단을 사용해 과테말라에서 의류로 가공하는 봉제가 섬유산업의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방직 및 방직과 같은 장치산업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아시아산 원자재 수급 관련 불안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한편, 한-중미 FTA도 한국과 관계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2010년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SICA정상회담 당시 한국이 옵서버로 참여하면서 논의된 것을 계기로, 이후 타당성 조사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FTA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실제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9차례의 FTA 협상이 진행됐고(공식 7회, 회기간 2회), 2016년 11월 16일 한-중미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실질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2017년 3월 12일 우리나라는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과 임시서명을 맺었으며, 과테말라의 경우 국내 산업계의 반대 의견 조율에 실패,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빠지게 됐다. 우리 정부는 국민 의견 접수를 위해 2017년 9월 1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중미 FTA 협정문 영문본과 국문본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이어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FTA 최종 점검을 위한 기술회의를 서울에서 개최, 중미 5개국 대표단과 함께 협정문 전체를 최종 점검하고 서명 관련 세부사항을 조율하였다. 2018년 2월 21일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 통상장관과 서울에서 정식 서명을 마쳤다.

2019년 8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중미 FTA 협정이 비준되면서 국가별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2019년 10월 1일, 코스타리카 2019년 11월 1일, 엘살바도르 2020년 1월 1일 FTA가 발효되었으며, 파나마에서도 국내절차가 완료되어 2021년 3월 1일 발효되어 최종 FTA가 발효되었다. 이에 과테말라도 별도의 추가 가입 절차를 통해 FTA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한국과 재협상 중이며, 2022년 중에 협상 체결을 목표로 양국 정부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서 중남미 비중점 국가에 속해 있으나, 과테말라 입장에서 한국은 주요 공여국 중 하나이다. OECD Stat.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18년까지 5,410만 달러에 해당하는 무상원조를 지원하였다. 현재 과테말라 치안강화를 위한 경찰교육시스템 개선사업, FAO 기후변화대응 종합적 혼농임업 역량강화사업, GCF 서부고원지대 기후변화 복원력 강화사업이 진행 중이다. 유상원조인 EDCF의 경우 2018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협조유자를 통해 과테말라 병원 인프라 구축 및 장비 지원사업에 7,900만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동 프로젝트는 2020년 5월 국회에서 승인되었고, 2022년 4월 터키 건설 프로젝트 부분에 대한 국제입찰공고가 나온 상황이다.

문화

대사관 및 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매년 한국영화 상영회, K-POP 페스티벌 등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대사관, 한인회 공동 주관 문화행사로 매년 9~10월경 개최하는 중남미-대한민국 예술제는 한인교포사회와 현지인이 함께 어울리는 최대 행사로 자리 잡았다. 2018년에는 7월 K-POP WORLD FESTIVAL 과테말라 예선전을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이어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8월 방문하여 현지인 및 교포를 대상으로 한 사물놀이 워크숍과 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2019년에도 활발하게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6월에는 한인타운이 자리 잡은 Zona 7에서 "서울로 5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고, 전년도에 이어 K-POP WORLD FESTIVAL 과테말라 예선전을 개최하였다. 7월에는 한국 퓨전 국악그룹 "퀸"이 방문해 과테말라 국립극장에서 과테말라 마림바 공연단과 함께 공연을 개최했으며

8월 말부터 과테비전(GuateVision)에서 '구르미 그린 달빛'을 상영했다. 2020년에는 4월부터 과테비전에서 뽀로로를 상영하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대사관에서 과테말라 도서전에 한국문화와 도서들을 전시할 계획이다. 주한 대사관은 올해 10월에 중남미 도서전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3. 경제현황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2
경제성장률 (%)	3.06	3.35	-1.5	7.5	
명목GDP (십억\$)	78.46	81.32	77.43	85.72	
1인당 GDP (PPP, \$)	8,442.96	8,704.88	8,637.56	8,853.7	
1인당 명목 GDP (\$)	4,545.09	4,616.85	4,603	5,024.2	
정부부채 (% of GDP)	24.69	25.24	27.2	28.55	
물가상승률 (%)	3.75	4.21	4.82	3.07	
실업률 (%)	2.8	2.5	2.5	2.2	
수출액 (백만\$)	10,993	10,769	11,514	13,621	
수입액 (백만\$)	18,388	19,699	18,207	26,608	
무역수지 (백만\$)	-7,395	-8,930	-6,693	-12,987	-
외환 보유고 (백만\$)	12,309.89	14,457.28	16,916.5	20,939.6	
이자율 (%)	2.75	2.75	1.75	1.75	
환율 (자국통화, 대미환율)	7.52	7.7	7.74	7.72	

<자료원 : IMF, Global Trade Atlas(2019 수출입), 과테말라통계청(실업률)>

나. 경제 동향

과테말라는 원자재, 유가 가격 상승에 따른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의 영향과 물류비용 상승에 따라 수입 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방역 완화 조치로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 2022년에는 인프라 사업과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가족 송금 등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이는 경제 회복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2022년에는 4.1%의 GDP 성장이 예상된다.

과테말라 중앙은행장 Sergio Recinos는 2022년 제조, 건설, 상업, 운동 부분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앙은행은 방역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생산 증가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GDP가 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1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2%, 수입은 44% 증가했으며, 시중은행 대출은 11월 18일 자 기준 11.13% 증가했다. 과테말라 소비의 원동력이 되는 가족 송금은 15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11월 기준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다. 과테말라의 인구의 약 40%는 해외이민자의 가족 송금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소비 대부분을 가족 송금에 의존하고 있고, 송금액은 GDP의 13%를 차지하는 과테말라 주요 외화 획득원이다. 과테말라 중앙은행장 Sergio Recinos는 2022년 제조, 건설, 상업, 운동 부분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앙은행은 방역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생산 증가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GDP가 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액은 수출액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작년 대비 38.1% 급증한 가운데, 이는 국제 유가 및 소비자 가격 상승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커피, 바나나, 카르다몸, 설탕, 팜유 등)과 의류이나 농산물 수출이 점차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미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멕시코 등 인근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들로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수입품은 에너지(석유·석탄·가스), 자동차 및 운송수단 및 플라스틱·봉제 관련 원부자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과테말라 국가경쟁력위원회(Pronacom)에 의하면, 2021년 8월까지 과테말라에 투자된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8.5억 달러로, 에너지, 제조업, 식품업을 비롯해 섬유분야의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3,2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 왔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 19 상황에도 과테말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편리한 시장 접근성이 글로벌 투자기업의 진출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최근 섬유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적인 조업환경,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뿐 아니라 중미 지역으로의 니어 쇼어링 및 미국 경기 회복으로 주문이 늘어나 호조를 이어가며 투자를 늘려가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다. 경제 전망

과테말라는 20년 기준 1,800만명의 인구, GDP 776억 달러로 중미에서는 외부 충격에 안정적인 국가로 평가받았다.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20년 GDP는 -1.5% 역성장 하였으나, 21년은 5.1%를 기록했다. COVID19 백신 접종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이는 경제 회복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22년 GDP는 4.1%를 예상하고 있다. 과테말라 중앙은행장 Sergio Recinos는 22년 제조, 건설, 상업, 운동 부분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앙은행은 방역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생산 증가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GDP가 6%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1년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22%, 수입은 44% 증가했으며, 시중은행 대출은 11월18일자 기준 11.13% 증가했다. 과테말라 소비의 원동력이 되는 가족 송금은 15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11월 기준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다.

과테말라 비료 가격은 21년 초 대비 25%-50%로 인상되었으며, 운임 비용,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인상과, 석탄 부족에 따른 중국의 전력난, 미국 내 허리케인 아이다 발생에 따라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수급에 따라 섬유산업 외 제조업의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상 화물 비용 증가에 따라 22년 수입업자들의 구매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다. 정부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로 인해 투자를 위해 사용되지 못하는 국고도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전망한다. 21년 월 별 최저임금은 비농업 2825.10케찰(362.19 달러), 농업 2742.3케찰(351.59 달러), 수출 및 마길라 2581.77케찰(331 달러)이며 과테말라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률, 국가 생산성, 인플레이션 등 주요 경제 수치를 반영 시 2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4.26~7.26%가 적절하다고 분석했다.

과테말라는 2018년 2월 한-중미 FTA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중미 내 유일한 국가로 가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과테말라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중미 경제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한국과 중미 회원국간의 과테말라 FTA 추가 가입에 대한 동기가 선결된 후 한-중미FTA에 서명하도록 추진중이다. 과테말라는 이에 따른 협조를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와 중미통합체제(SICA)에 요청했다.

중미수출연합회(FECAEXCA)는 중미 지역의 해상 화물 운임과 컨테이너 임대 비용이 폭등했다고 보고했다. 20년 9월 컨테이너의 1대당 주당 운임은 \$1,200-\$14,000이었으나 10월 기준 \$10,996까지 상승해 있으며, 특정 노선은 \$4,000에서 \$20,000까지 상승했다. 과테말라 선사 협회는 중미지역의 해상운송 비중은 1년안에 운임 가격이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1년 외국인 투자 유치는 약 12억 달러로 75.6%는 재투자, 24.4%는 신규 투자로 집계되었다. 미국을 대표하는 11개의 투자 및 재투자 프로젝트가 등록되었는데 제조업, 식음료, 에너지, 섬유, IT,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약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괄목할 만한 외국인 투자로는 MILICOM사의 통신사 Tgio 지분 인수 2,200백만 달러, 콜센터 Telus사의 신규투자 28.4백만 달러, 스페인 제약사 Faes Farma의 인수 30백달러, 스페인 섬유회사 Nextil Group의 40백만불 투자 등이 있다.

과테말라는 공공사업(도로, 공항, 항구, 병원 등 인프라)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중 주요 인프라 사업인 5개 병원 인프라 개선 사업은(3개 신축, 2개 증축) 중미 경제통합은행(BCIE)에서 투자하고 있으며 1억9300만 달러 규모로, 한국 수출입 은행 협조 용자 기금이 7900만 달러가 투입돼 있다.

21년 IMF조사단은 과테말라를 방문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진단했다. 또한 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통해 불법 이민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원자재 수입국인 과테말라는 농업분야에 가장 타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물류비용의 증가로 인해 식품 산업 분야에 구매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미 이민문제 관련해서 차마데이 대통령은 제4차 포괄적 난민 대응 프레임워크(CRRF)회의에서 불법이민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일자리 창출, 기초 서비스 개선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992,720,271
2	엘살바도르	1,335,085,989
3	온두라스	935,219,809
4	니카라과	544,604,094
5	멕시코	522,573,693
6	코스타리카	430,051,142
7	네덜란드	367,974,632
8	파나마	242,996,861
9	캐나다	196,082,282
10	스페인	177,306,75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911,483,617
2	엘살바도르	1,383,407,676
3	온두라스	1,000,301,562
4	멕시코	575,097,429
5	니카라과	554,039,180
6	코스타리카	428,408,908
7	캐나다	422,613,235
8	네덜란드	293,860,668
9	사우디아라비아	261,406,803

10	파나마	233,427,674
----	-----	-------------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840,667,293
2	엘살바도르	1,313,449,096
3	온두라스	1,018,468,071
4	니카라과	662,430,787
5	멕시코	466,350,776
6	코스타리카	445,103,889
7	캐나다	387,520,553
8	네덜란드	351,936,941
9	사우디아라비아	318,812,569
10	아랍에미리트	238,608,336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7,506,179,433
2	중화인민공화국	2,224,117,369
3	멕시코	2,172,353,712
4	엘살바도르	1,026,137,688
5	코스타리카	659,638,940
6	파나마	586,555,163
7	콜롬비아	532,859,631
8	온두라스	430,338,108
9	인도	333,715,954
10	스페인	330,101,183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7,406,000,012
2	중화인민공화국	2,286,926,660
3	멕시코	2,235,491,744
4	엘살바도르	1,034,351,411
5	코스타리카	698,087,657
6	파나마	670,289,506
7	콜롬비아	602,435,623
8	온두라스	480,072,553
9	브라질	348,172,739
10	독일	309,505,951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6,320,218,214
2	중화인민공화국	2,334,555,604
3	멕시코	2,154,812,475
4	엘살바도르	974,908,187
5	코스타리카	688,184,265
6	파나마	618,568,657
7	온두라스	492,274,513
8	콜롬비아	408,289,063
9	인도	310,786,347
10	브라질	301,782,039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80390	기타	818,853,303
2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681,037,189
3	0908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435,049,124
4	151110	조유(粗油)	408,678,386
5	170199	기타	357,230,859
6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292,766,540
7	610610	면으로 만든 것	187,806,243
8	610510	면으로 만든 것	186,183,123
9	271600	전기에너지	180,747,860
10	300490	기타	167,114,409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80390	기타	1,037,253,147
2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663,128,266
3	0908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651,245,297
4	170199	기타	374,632,711
5	151110	조유(粗油)	360,632,277
6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334,750,501
7	271600	전기에너지	259,294,785
8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240,904,659
9	611020	면으로 만든 것	218,362,742
10	300490	기타	195,230,777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090831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1,083,102,691
2	080390	기타	1,000,257,800
3	0901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652,173,195

4	151110	조유(粗油)	411,008,723
5	720260	페로니켈(ferro-nickel)	320,842,032
6	170199	기타	311,801,877
7	1701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267,982,023
8	300490	기타	215,387,314
9	611020	면으로 만든 것	194,359,691
10	610610	면으로 만든 것	178,298,668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327,486,040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151,035,018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73,939,854
4	300490	기타	442,363,242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37,782,784
6	271112	프로판	334,623,905
7	270112	유연탄	258,160,550
8	210690	기타	234,828,269
9	100590	기타	228,121,898
10	480411	표백하지 않은 것	208,570,012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1,377,162,702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147,562,217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17,645,764
4	300490	기타	459,329,948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311,062,588

6	270112	유연탄	289,297,704
7	271112	프로판	283,398,414
8	100590	기타	272,827,005
9	210690	기타	251,460,903
10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201,101,678

<자료원 : UN Comtrade>

2020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1019	기타	868,980,259
2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777,979,657
3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32,526,955
4	300490	기타	485,407,717
5	100590	기타	297,217,194
6	210690	기타	258,048,583
7	271112	프로판	227,892,343
8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225,033,466
9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93,606,828
10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84,227,645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표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237	67	170
2019	222	64	158
2020	203	78	125
2021	384	138	246
2022	240	91	14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현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2	경유	51	0	50
2	7411	승용차	34	0	33
3	2140	합성수지	24	0	23
4	7412	화물자동차	27	0	27
5	2262	의약품	23	0	23
6	4213	면사	18	0	18
7	7251	건설중장비	6	0	6
8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1	0	10
9	2211	염료	17	0	16
10	4360	편직물	20	0	2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32	경유	38	0	38
2	7411	승용차	25	0	25
3	2140	합성수지	22	0	22
4	7412	화물자동차	21	0	21
5	2262	의약품	15	0	15
6	4213	면사	11	0	11
7	7251	건설중장비	10	0	10
8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10	0	10
9	2211	염료	9	0	9
10	4360	편직물	7	0	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1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51	커피류	0	44	-45
2	1170	니켈광	0	0	0
3	6221	동괴및스크랩	0	16	-17
4	4411	편직제의류	0	5	-5
5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12	-12
6	0116	과실류	0	9	-9
7	8499	기타 전기부품	0	0	0
8	6184	고철	0	1	-1
9	0170	종자류	0	1	-1
10	4412	직물제의류	0	0	-1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2년 (8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0151	커피류	0	46	-46
2	1170	니켈광	0	10	-10
3	6221	동괴및스크랩	0	9	-9
4	4411	편직제의류	0	7	-7
5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0	6	-6
6	0116	과실류	0	5	-5
7	8499	기타 전기부품	0	4	-4
8	6184	고철	0	1	-1
9	0170	종자류	0	1	-1
10	4412	직물제의류	0	1	-1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수출 유망품목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음료		
HS Code	2202	수입액('21/US\$백만) ('22.2월/US\$백만)	143 30
수입관세율(%)	15	대한수입액('20/US\$백만) ('22.2월/US\$백만)	8 2
선정사유	한국산 제품 수요 급등 품목		
시장동향	① 주류, 탄산음료, 넥타, 생수 제품 현지생산, 경쟁 치열 ② 탄산음료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생기며 스포츠드링크, 건강음료 위주로 수요 증가세 ③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 수입 감소 후, '21년 증가세		
경쟁동향	① 멕시코, 중미 모두 생산하며 역내 교역 활발 ② PEPSI, AMBEV등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CBC社가 역내에서는 가장 큰 기업		
진출방안	① 알로에베라, 코코넛 등 현지 미생산 제품 중심으로 품목 다변화 ② 에너지드링크, 캔 커피 등 제품 수요가 다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이어트 음료 등 건강음료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높음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품목명 2	자동차부품		
HS Code	8708	수입액('21/US\$백만) ('22.2월/US\$백만)	206 37
수입관세율(%)	10 (단, 8708.30.20은 0%)	대한수입액('21/US\$백만) ('22.2월/US\$백만)	4 1
선정사유	① 한국산 차량(신차·중고차) 수요가 꾸준히 증가 ② 특히 한국산 중고차에 대한 애프터마켓 제품 및 자동차 유지관리 부품 수요 동반 성장 중 ③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 수입 감소 후, '21년 큰 폭으로 증가세		
시장동향	① 신차시장 기준 기아차(2위), 현대차(3위) 등 높은 한국산 선호도 지속		
경쟁동향	① 대부분의 품목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저가 중국산, 대만산, 멕시코산이 시장 장악		
진출방안	① 중미 전역에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Excel Automotriz, Grupo Q 등)를 집중적으로 공략 엘살바도르 FTA 발효 이후 관세 0%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품목명 3	자동차배터리		
HS Code	8507.10.00	수입액('21/US\$백만) ('22.2월/US\$백만)	53 9

수입관세율(%)	15	대한수입액('21/US\$백만) ('22.2월/US\$백만)	8 1
선정사유	미국·멕시코산은 무관세품목임에도 한국산이 더 저렴하고 품질도 우수하다는 시장 인식 지배적		
시장동향	① 멕시코산에 이어 한국산이 시장점유율 2위 차지 ② 코로나19 영향으로 '20년 수입 감소 후, '21년 증가세로, 대한 수입액도 증가세 유지		
경쟁동향	① MAGNUM(현지), LTH, BOSCH, Interstate, AC Delco, Solite 등 유명브랜드 각축장		
진출방안	① 한-중미FTA 발효국 우선 진출 - 엘살바도르 관세 즉시철폐, 온두라스 10년 균등철폐 ② 중미 전역에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Excel Automotriz, Grupo Q 등)를 집중적으로 공략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품목명 4	의약품		
HS Code	3004	수입액('21/US\$백만) ('22.3월/US\$백만)	666 115
수입관세율(%)	5	대한수입액('21/US\$백만) ('22.3월/US\$백만)	4 1
선정사유	① 높은 빈곤층 비율로 인해 공공보건 분야의 의약품 재고가 항시 부족 ②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대비 '20년 수입 감소 후, '21년 증가하여, 예년 수준으로 회복 중		
시장동향	공공부문 조달시장 기준 10대 조달 업체의 낙찰 규모는 평균적으로 2억 달러 내외		
경쟁동향	Bayer, Abbot 등 다국적 제약사를 포함 71개 내외의 의약품 업체가 영업 중이며, 일부는 현지 생산공장 운영		
진출방안	① 천연 약재, 소아용 의약품, 항암제, 항생제 등 고 경쟁력 제품 위주 시장 진출 ② 공공 조달시장의 경우 현지 낙찰 경험이 많은 유력 조달 업체와의 파트너십 중요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품목명 5	화장품		
HS Code	3304	수입액('21/US\$백만) ('22.2월/US\$백만)	31 37
수입관세율(%)	15	대한수입액('21/US\$백만) ('22.2월/US\$백만)	0.23(0.7% 점유) 0.21(0.6% 점유)
선정사유	K-Beauty에 대한 여성 소비자 관심 증대		
시장동향	① 기초화장품을 중심으로 한국산을 찾는 소비자, 유통망 확산하며 급격한 성장세('19 152%, '20 95%) ② Siman 등에서 고급 화장품을 판매하며 기타 Walmart, Torre 등 슈퍼체인에서 중저가 화장품 취급하고 있으나 색조 위주 ③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대비 '20년 수입 감소 후, '21년 증가세		
경쟁동향	① 현지 생산업체(Flushing)가 있으며, 페루계 화장품 기업인 Belcorp 산하브랜드(ESICA, L'BEL, CYZONE 등) 강세 ② Mumuso, Miniso 등 한류편승브랜드 진출 중		

진출방안	① 전문 온·오프라인 유통망 및 벤더를 활용하되, 진출 초기 인플루언서 마케팅 투자 필요 ② 현지보건등록이 필요하며 수입상이 해당 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각종 서류 작성에 협조 필요 ③ '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과테말라무역관 소비재 팝업스토어, KSF사업 참여 등
유망국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플랜트
선정사유	① 과테말라 신정부를 중심으로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 ② CABI 가입 이후, 우리 기업의 CABI 프로젝트 진출 기회 확대 ③ '20년 말 승인된 CABI 차관을 통한 과테말라 병원 구축 프로젝트 추진 중으로 '22년 초 입찰 예정
시장동향	인프라 개발 수요는 많지만, 정부 재정 문제로 CABI, IDB 등 MDB 차관 도입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병원, 전력통신망 구축, 항만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높음
경쟁동향	과테말라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고 언어적인 문제로 스페인, 멕시코, 콜롬비아 등 역내 기업들의 참여가 두드러짐.
진출방안	① 현지 플랜트 프로젝트는 현지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각종 리스크 헷징 필요 ② 사전타당성 조사, 감리 혹은 기자재 조달 등 건설이 아닌 부가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가능
품목명 2	콘텐츠
선정사유	① '20년 코로나19 이후, 과테말라에서도 YouTube, Netflix 등 콘텐츠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한류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문화의 아이콘들이 알려지고 있음 ② 젊은 인구를 중심으로 한류 동호회, 커버댄스그룹 등이 구성되며 또래집단에서 한국문화를 알리고 있음
시장동향	대장금, 구르미 그린 달빛 등 드라마가 방영된 바 있으며 '20년에는 타요, 뽀로로 등 애니메이션, '21년에는 온식당 예능 방영
경쟁동향	① 전통적으로는 동일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중남미, 스페인 콘텐츠가 인기를 얻고 있음. ② Netflix 등을 통해 자막이 제공되는 콘텐츠들을 통해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확대되고 있음
진출방안	① 현지 방송사와의 협력을 통한 콘텐츠 유통 진출 ② 한류를 기반으로 중남미 맞춤형 교육, 문화 등 콘텐츠 개발(스페인어 더빙/자막 필수)

4.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과테말라-쿠바 관세협정	쿠바	1999-01-29	2001-05-18	양자 협정
도미니카공화국- 중미 FTA	도미니카공과 중미 5개국(파나마 제 외)	2000-05-18	2001-10-15	(중미 5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과테말라-벨리즈 관세협정	벨리즈	2000-06-20	2010-04-04	양자 협정
파나마-중미 FTA	파나마와 중미 5개국(과테말라, 엘 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 타리카)간	2002-03-06	2009-06-22	(중미 5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DR-CAFTA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중미 5개국 (파나마 제외) 간	2004-08-05	2006-07-01	(중미 5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대만-과테말라 FTA	대만(양자)	2005-09-22	2006-07-26	양자 FTA
콜롬비아-중미 북부 3개국 FTA	콜롬비아와 중미 북부 3개국(과테말 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간	2007-08-09	2009-11-12	콜롬비아와 중미 북부 3개국간 다자 FTA
칠레-중미 FTA	칠레와 중미 5개국(파나마 제외) 간	2007-12-07	2010-03-22	(중미 5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에콰도 르 관세협정	에콰도르	2011-04-15	2013-02-19	양자 협정
멕시코-중미 FTA	멕시코와 중미 5개국간(파나마 제외)	2011-11-22	2013-09-01	(중미 5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EU-중미 FTA	EU와 중미 6개국 간	2012-06-29	2013-12-01	(중미 6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 나마
과테말라-온두라 스 관세동맹	온두라스	2015-01-21	2017-06-26	엘살바도르 편입을 위한 3국 협상 완 료(2018년 6월)
영국-중미 FTA	영국과 중미 6개국 간	2019-07-18		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과의 FTA를 유지하기 위해 체결. 영국의 EU 탈퇴 이행 기간은 EU FTA로 효 력이 유지되며 이행기간 종료 후에는 영국 FTA로 동일한 혜택 유지

〈자료원 : 과테말라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IA)〉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과테말라-페루 FTA	페루	2011년 12월 6일 체결 완료(이후 진전 없음)	협상 중지 상태로 수년간 유지되고 있음
EFTA-중미 FTA	EFTA 4개국과 중미 6개국 간	2014년 11월 17일 체결 완료(이 후 진전 없음)	(중미 6개국) 과테말라, 엘살바도 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 카, 파나마
과테말라-트리니다드토바고 관세 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	2015년 2월 6일 양국 서명 후, 2017년 2월 17일 과테말라국회의 비준 완료	트리니다드토바고 국회 비준만을 남기고 있는 상태이나, 큰 진전은 없음
한-중미FTA	한국과 중미 6개국 간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한-중미 FTA 발효 * 1차로 자국 비준 절차를 우 리나라에 통보한 니카라과, 온두라 스와 우선 발효	* 과테말라는 협정발효 후 정식 가 입절차를 거쳐 참여예정
한-이스라엘	이스라엘	2022년 9월 8일 FTA 협정 체결 완료	

<자료원 : 과테말라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IA),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3/c_america/1/)>

5.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없음.

수입금지품목

과테말라의 수입금지 품목으로는 농산품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조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거 법은 아래와 같다.

- 총기/탄약류 관리법(LEY DE ARMA Y MUNICIONES, DECRETO 39-89)
 - 공격용 무기 규제에 관한 사항
- 환경 보전/개선법(LEY DE PROTECCION Y MEJORAMIENTO DEL MEDIO AMBIENTE, DECRETO 68-89)
 - 인체/동물 유래, 환경유해물질 규제에 관한 사항
- CFC 규제법(LEY RELATIVA A CFC, DECRETO 110-97)
 - CFC 보유 제품 규제에 관한 사항
- 마약유통 규제법(LEY CONTRA LA NARCOACTIVIDAD, DECRETO 48-92)
 - 마취제, 마약류 등 규제에 관한 사항
- 농약 규제(DECRETO 377-90)
 - 농약, 살충제 등 25개 제품 규제에 관한 사항

수입 규제 품목의 경우 유기 화학품은 농업부와 보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분유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육류 중에서도 세계동물보건기구가 발표한 동물 질병(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라 한국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신선한 고기, 피, 유제품, 털, 가죽, 내장 등 포함)는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중고차도 한때 수입 규제 대상이었다. 예컨대 2012년 3월 법안(Decreto 10-2012)에 따라 15년을 초과하는 차량 모델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수입 중고차에 대한 연식 규제를 시행해왔으나 중고차수입자조합(GREMIAL DE IMPORTADORES DE VEHICULOS USADOS)이 동 규제에 대해 제기한 위헌소송이 인용되면서 2013년 6월 29일부로 동 규정을 철폐했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1)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요구하는 각종 인증 및 검사 제도

- 인증제도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Certificado de Fitosanitario)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외에 자동차 배터리의 배터리액과 같은 화학제품 등은 위험품목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인증제품을 선호한다.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스페인어로 작성해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Free Sale Certificate)을 비롯해 각종 연구분석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까지 소요기간은 3~4개월이다.

최근 과테말라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화장품들도 보건부 사전 등록이 필요한데 한국 기업이 작성한 위임장 및 법률 대표인의 신분증(두가지 모두 아포스티유 필요), 우수화장품제조관리기준(CGMP), 자유판매증명서(CFS), 연구소 성분 분석표(COA, Certificate of Analysis), 완제품 전성분표(Quali-Quantitative formula), 라벨 및 포장/디자인, 제품 샘플(자외선 차단제일 경우)가 필요하다. 해당 서류를 다 갖춘 경우, 제품을 수입유통 하게 될 바이어가 보건부에 신청서, 과테말라 대행사가 진행한 제품분석표 등과 함께 보건부에 등록하게 된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KOTRA 해외시장뉴스-상품산업 트렌드-과테말라무역관에 게재된 기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모두 과테말라 현지에서 제품을 실제 유통하게 될 바이어가 등록을 진행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과테말라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품 수입 바이어를 확보해야 한다.

○ 라벨링

과테말라 법에 따르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검사 및 등록이 필요하고 스페인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등록번호
- 과테말라 유통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취급상 주의사항 등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 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원회(Comision Guatemalteca de Normas)이며 표준 규격 인정서를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고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중미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에서 담당한다.

2) 인증획득을 위한 필수 절차

모든 식품 수입 및 유통업자는 보건복지부와 보건관리국에 등록 후 위생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또 살아있는 동물 및 가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 산하 동물 보건국의 동물 수입 위생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순종으로 간주되는 동물은 수출국의 인증서가 필요하다. 그 밖에도 가축 사료 및 동물성 제품, 식물성 제품 및 담배와 그 모조품 수입 시 농림부 조례·규격부서의 위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담당 기관의 인증 획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기관 등록을 먼저 마쳐야 한다.

3) 인증 관련 절차 안내 사이트

과테말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PRONACOM)와 미주개발은행(IDB)이 공동으로 개발, 각종 행정절차 및 필요서류 등을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안내해주는 온라인플랫폼 asisehace.gt가 운영되고 있다. 상호, 법인 등록부터 공과금납부, 보건등록 신청 등 대부분의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잘 소개가 되어 있으며, 각 서류에 대한 예시가 제시되어 있어 유용히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을 때 업데이트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신청서 버전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해당 사이트는 스페인어로만 운영되고 있으나 구글 번역기가 연동된 만큼 어렵지 않게 한국어 번역된 내용으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4) 기타 주의사항

보건등록을 위한 양식 일부가 2018년 8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해당 양식의 이름은 법정대리인 위임장(CARTA DE PODER DE REPRESENTANTE LEGAL)로 문서 상 독점계약을 의미하는 문구는 없지만, 해당 등록제품에 대한 법적인 권한을 의미하는 문서인 만큼 일종의 독점계약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문서는 과테말라 내에서 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일 뿐이며 독점계약에 대해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별도로 독점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만큼 해당 위임장이 독점계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수출자가 희망할 경우 과테말라의 다른 수입유통상이 제품 등록을 재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TBT

현지 통상 관계법은 미국이나 국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별도의 까다로운 TBT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식료품, 의약품 같은 인체 내로 들어오는 제품류의 경우 TBT로 비칠 수 있는 요소들이 다소 존재한다. 예컨대 다이어트식품류, 유사요법 약제(호메오패틱), 예방 약제, 생약제제 등은 반드시 의약품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국제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국립보건연구소 LABORATORIO NACIONAL DE SALUD(LNS)의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과테말라는 1995년 WTO 가입한 이후, 2019년까지 총 133건의 통보가 있었으며, 2019년에는 디젤유 및 유제품에 대한 2건의 신규 제정 내역을 통보하였고, 7건(액체연료, 가스연료, 유제품 등)의 개정사항을 통보하였다. 과테말라의 질의처는 과테말라 경제부 무역기술장벽 부서의 Magin Beteta Barilla(mbeteta@mineco.gob.gt), Francisco Fernando Vasquez Collado(fvasquez@mineco.gob.gt)로 지정되어 있다.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개요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공동시장(영문:CACM/서문:MCCA)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1993년 2월 27일부로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의 중미 공동관세체계(SAC)를 채택하면서 자국의 기본 관세 체계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 관세로 일치시키고 있다. 더불어 중미 공동관세체계(SAC)를 채택하고 있는 5개국은 2017년 1월 1일부로 기존 체계인 8자리에서 10자리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품목분류체계가 교역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코드 추가 또는 세분화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상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도 기술 발전, 일부 품목의 소멸 등 교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품목분류체계를 개정하고 있다. 그래서 과테말라국세청(SAT)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율을 온라인 조회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구 번호체계(8자리)로 검색하면 무관세(영세율)로 검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 관세율 종류

○ 수입 관세

역내국 간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한다. 역내교역은 중미 단일관세코드(CAUCA) 체계에 의거 DUCA라는 별도 수출신고양식을 통해 처리하게 되고 역외교역은 중미 관세체계(SAC)에 의거 대외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큰 골자다. 대외 관세율은 자본재 및 역내 비생산 원자재 0%, 역내생산 원자재 및 의약품 5%, 중간재

10%, 국내 비생산 소비재 15%, 국내 생산 소비재 20% 선이나 중미 각국마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고 있어 일부 소비재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고 40%까지 이르고 있다. 즉, 회원국 입장이 상이한 의약품, 일부 농산물, 주류 등 사치성 소비재와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공동관세 적용을 유보하되, 각국의 관세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겠다. 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15%의 종가세(CIF기준)를 적용하나 흰 옥수수(HS 1005.90.30), 설탕(HS 1701), 담배를 함유한 궤련(HS 2402.20.00), 일부 차량 및 무기·탄약 등은 최고 20%, 알코올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중미 6개국은 2019년 5월부터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3종의 수출신고양식을 DUCA라는 이름으로 통합하고 각 국가의 세관 시스템을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이 개발한 DUCA 플랫폼에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 수입 부과금

수입 시 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IVA) 12%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의 해상운임은 인근 중남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수입 시 제세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 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 신고 서류상의 하자나 오류 등으로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으며, 통관이 지연 또는 보류될수록 창고료 부담도 커지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수출세

과테말라는 커피 수출 시 100파운드(45.3592kg)마다 FOB 가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출세로 납부한다.

중미경제통합 역내국 간에는 석유 제품 등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품 수출입 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Maquila 산업(보세 가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수출진흥법(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la) 및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자유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원·부자재 수입 시 관세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3) 반덤핑, 상계관세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 간 역내 산업의 보호 육성 및 장치의 하나로 1995년 12월 12일 중미 공동 불공정 무역 규범을 정해 시행 중이다. 동 규범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덤핑 및 상계관세 주무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경제통합국(Dirección General de Integración Económica)으로 덤핑 및 보조금 지급률 2% 미만 시에는 무혐의 처리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사자와 세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4) 대한 수입규제 내역

과테말라는 2019년 9월 WTO에 한국 철강판재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알리는 통보문을 발송하였다. 이는 한국산 제품이 제소된 첫 사례이다. 조사 대상 품목은 7225.91.00, 7225.92.00, 7225.99.00 세 번에 해당하는 제품(관세율 0%)으로 과테말라에서는 주로 지붕재로 사용되는 도금 판재류이다. 이번 조사는 2018년 2월 Ternium사의 세이프가드 조사 신청으로 시작되었으며 과테말라 경제부는 2019년 7월 조사를 허가하고, 2019년 8월부터 조사를 개시했다. 2019년 11월 과테말라 수입자, 생산자 및 한국 수출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20년 1월 20일 연방 관보를 통해 한국 철강제품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별도 조치 없이 종료함을 발표하였다. 관보에서는 조사 결과, 한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과테말라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GATT 1994 제19조에 명시된 조건과 세이프가드 협정 및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중미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은바, 세이프가드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관세 평가는 통상적으로 Invoice Value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등 일부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북미시장 시판 가격 또는 기타 국제시장에서 관세 평가 시 원용되는 자료를 참고하고 있다.

- 관세율 찾는 법1: 중미경제통합기구(SIECA) 시스템 활용(스페인어)
 - <https://www.aduanas.sieca.int/aci>
 - BUSQUEDA DE ARANCELES 클릭 후, 1번의 INCISO를 선택하고 2번 박스에 검색을 희망하는 HS Code를 입력하거나 CODIGO를 클릭해서 하위분류로 이동
 - 중미 대외 공동관세의 경우, 세율이 하나만 안내되며 국가별로 다른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국가별로 안내됨
 - 원어 설명Codigo: HS Code 번호 / Descripcion: 품목명/ DAI(Derechos Arancelarios a la Importacion): 관세율

- 관세율 찾는 법2: 과테말라국세청(SAT) 온라인시스템 활용
 - <http://portal.sat.gob.gt/portal/arancel-integrado/> 방문
 - 페이지 중앙 'Consultas del arancel integrado' 선택 → 'consultar Arancel Integrado de Guatemala' 선택
 - 'Posicion arancelaria' 공란에 조회코자 하는 HS코드 10자리(또는 SAC 코드 10자리) 입력 후 'Buscar' 버튼 클릭
 - 품목 코드 등 조회결과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스페인어만 가능) 이상이 없는 경우 'Derechos e impuestos' 버튼 클릭
 - TRATAMIENTO GENERAL 테이블이 FTA 미 체결국 대상 관세율이며, FTA 체결국은 별도 테이블로 제공 (Posicion arancelaria 공란에 HS코드 8자리로 입력)
 - DAI(Derechos Arancelarios a la Importacion)가 관세를 의미하며, IVA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수입부가세(12%)

6. 통관 · 물류

가. 물류정보

물류정보

1) 주요 무역항 및 물동량

과테말라에는 태평양의 푸에르토 케찰(Puerto Quetzal), 카리브해의 푸에르토 바리오스(Puerto Barrios) 및 산토 토마스 데 카스티야(Santo Toms de Castilla)를 중심으로 두 해안에 5개의 항구가 있다.

푸에르토 케찰(Puerto Quetzal): 태평양에서 가장 큰 항구이며 파나마 운하와 인접해 있어 주요 위치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 과테말라시 티에서 100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유람선 정박지로 유명한 곳으로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효율적인 설탕 터미널이 있으며 액화 가스, 석탄 및 유람선 터미널도 있다.

푸에르토 바리오스(Puerto Barrios): 과테말라의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하며, 그 해안에 위치한 두 항구 중 가장 오래되고 작은 항구이다. 1976년 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될 때까지 주요 건물이었으며, United Fruit Company에 의해 현대 산업 항구로 재건되었다. 과테말라시 티에서 29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원래는 과일 및 채소 수출을 위해 미국 무역과 국가를 연결하는 철도 터미널로 계획되었다.

산토 토마스 데 카스티야(Santo Tomas de Castilla): 과테말라에서 가장 큰 대서양 항구로 과테말라 시티에서 295km 떨어져 있으며 도로와 철도로 연결되어 있다. 지진으로 인근 푸에르토 바리오스 대부분이 파괴된 후 1976년에 지어졌다. 이 현대적인 시설은 화물을 취급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마야 유적 방문에 관심이 있는 관광객을 데려오는 유람선의 주요 정박지이기도 하다. 액체 벌크, 일반 화물, 컨테이너 및 유람선 터미널이 있다.

o 주요 항구 물동량

항구	Total Cargo 2020(Thousands of MT)
Puerto Quetzal	12,432
Puerto Barrios	4,168
Santo Tomas de Castilla	7,816

*자료원: <http://cpn.gob.gt/estadisticas-portuarias/>

2) 주요 공항 및 물동량

라 아우로라 국제 공항: 과테말라 시티에 있으며 중앙 아메리카에서 주요 관문이자 네 번째로 분주한 공항이다. 중앙 아메리카와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화물 허브로 과테말라의 민간항공총국(DGAC, Direccin General de Aeronutica Civil)에서 운영한다. 24개의 목적지가 있는 20개의 승객 항공사와 14개의 목적지가 있는 15개의 화물 항공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도 마야 국제공항: 플로레스 페텐 시에 위치한 이 나라의 두 번째 주요 공항이다. 라 아우로라 국제공항보다 작지만 여전히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승객은 북쪽의 관광지를 방문하며 과테말라 시티와 벨리즈로 가는 항공편이 있는 5개 항공사만 이용한다.

3) 유의사항

항공화물은 과테말라시 티에 위치한 라 아우로라(La Aurora) 공항을 통해 반출입 된다. 한국-과테말라 간에는 Maersk, ONE, CCNI, CSAV, Maruba, CMACGM, China Shipping, MSC 등 8개 정기화물 라인이 보통 주 1회 운항되며 L.A.에서 과테말라로 직접 오거나 도중 멕시코를 거쳐 오기도 하는데 소요기간은 20~22일 정도이다.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보통 화주가 지정한 통관회사 또는 운송회사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해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 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 서류 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를 검사해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 있다. 신고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돼 수취인이 인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에 붙여진다.

4) 기타 참고사항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항구 절차를 현대화하기 위해 과테말라는 국가의 주요 항구에서 상업 선박과 관광 선박에 대한 절차와 문서 표준화를 포함하는 계획으로 동 부문을 단순화하고 디지털화로 시도 중이다. 동 이니셔티브는 무역 촉진을 위한 글로벌 연합과 미국 국제 개발청 (USAID)의 지원을 받아 과테말라 국세청(SAT)이 주도하고 있다.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해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해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과테말라 국세청은 세관 수입신고서를 전산 처리하므로 통관 수속 시간이 훨씬 단축됐으며, 국제 특배의 경우는 물건 도착 이전 Invoice만 있으면 통관 수속을 미리 밟아 물건 도착 시 배송할 수 있다.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12%)는 수입 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과테말라는 CIF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므로 FOB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Invoice 금액으로 과세하게 되며, 물품 검사 과정에서 Invoice상 기재되지 않은 화물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과세한다. 2002년 5월부터는 관세 납부시 BancaSAT 시스템을 통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할 수 있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나.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보통 화주가 지정한 통관회사 또는 운송회사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해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 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 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를 검사해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정당하며 이 때문에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 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 있다. 신고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돼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에 부쳐진다.

최근 한국으로부터의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해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해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한다.

구체적인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수입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수입신고서(Poliza de Importacion) 또는 중미 공동수입 신고양식(중미 5개국에서 수입 시)
- 상업 송장(Factura comercial)
- 선적서류(Carta de Porte, Guia Aerea, Conocimiento de Maritimo)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도착통지서
- 기타 서류(제세 면제 시의 관련 서류 등)

한편 일시수입(Importacion Temporal)인 경우에는 일시 수입신고서, 재수입(Reimportacion)의 경우에는 재수입신고서 등 수입형태에 맞는 수입신고서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최근 과테말라 국세청은 세관 수입신고서를 전산 처리하므로 통관 절차 시간이 훨씬 단축됐으며, 국제특배의 경우는 물건 도착 이전 Invoice만 있으면 통관 절차를 미리 밟아 물건 도착 시 배송할 수 있다.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12%)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과테말라는 CIF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므로 FOB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Invoice 금액으로 과세하게 되며, 또한 물품검사 과정에서 Invoice 상 기재되지 않은 화물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과세한다. 국세청 포털사이트에서 Declaraguete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관세 납부가 가능하다.

2) 서류 및 물품검사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상업 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 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

관되거나 적색 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조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개 중남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 신호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 신호가 떨어져 전량조사를 하는 경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 송장과 포장 명세서 등 각종 신고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화물의 반출

각종 세금,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해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해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 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를 납부해야 한다. 통상 12일까지는 기본 창고료(인보이스 금액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상이/보통 10CBM 기준 60달러 수준)가 부과하며 통관 지연으로 그 이상 경과한 경우 추가 창고료를 징수한다.

통관 시 유의사항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 신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나 적색 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조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중남미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 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 신호가 떨어져 전량 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 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되는데, CIF 기준으로 500달러 이상의 수입물품은 반드시 통관사를 통해 수입신고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 12일까지는 기본 창고료(Invoice 금액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상이/보통 10CBM 기준 60달러 수준)를 부과하며 통관 지연으로 그 이상 경과한 경우엔 추가 창고료를 징수한다. 보통 화주가 지정한 통관회사 또는 운송회사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세관 직원들의 자의적인 업무처리와 컨테이너 헤드 부족 등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일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 서류상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신고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되어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후 경매에 부쳐진다.

과테말라에서는 범죄조직들이 밀수에 개입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들 범죄조직과 통관사 혹은 회사 내 무역 업무 관련 직원들이 결탁하여 정상적인 무역업체 명의로 수입하거나 정상적인 수입물품 사이에 밀수품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밀수하는 일이 흔하며, 이 경우 수입물품의 몰수뿐만 아니라 명의를 도용당한 업체나 정상수입을 한 업체가 밀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2015년 세관부정사건 적발 이후 전반적인 세관 행정이 까다로워졌으며,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하여야 한다.

최근 들어 현지 진출 또는 교포 한국기업들로부터 세관 직원들이 상업 송장 가격을 불신하고 자의적으로 물품 가격을 산정하여 높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기계류의 경우 설계도와 용도에 관한 설명서까지 요구하거나 국세청 본부의 의견 조회 등을 핑계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빈발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통관에 1주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에 따라 운송차량의 대기 및 창고비용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는 등 통관분야 애로가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18년 6월부터 과테말라 주요 항만 및 국경세관 등에서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율이 종전 5%에서 15~20%로 크게 늘면서 수입

업체의 비용 부담과 통관 애로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 소속 마약단속국의 수입화물 검사 때문인데, 세관 검사에 면제된 화물에 대해서도 마약단속국이 추가로 검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타 통관 관련 최근 이슈는 아래와 같다.

2017년 5월 16일 과테말라 주요 언론들은 검찰과 국세청이 보세가공 수출기업(마킬라업체) 들에 적용되는 수출용 원자재 관세 유예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포탈한 대규모 밀수조직을 적발한 가운데, 현재까지 파악된 세금 포탈액만 5천 9백만 과테말라 케찰(약 8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 검찰이 체포한 밀수조직 관련자에는 세관 직원, 전·현직 마킬라회사 직원, 통관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에게는 세금포탈, 범죄수익 은닉, 범죄단체 조직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마킬라 관세 유예제도 악용 사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1,074건으로 내수용 물품을 마킬라 업체용 수출용 원자재로 위장하여 수입하였으며, 상기 세금 포탈액 외에 벌금과 지연 이자까지 포함할 경우 밀수업자들로부터 징수할 비용은 최대 117,945백 만 과테말라 케찰(약 16,047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 사건과 관련하여 과테말라 최대 섬유산업협회(VESTEX) Alejandro Ceballos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섬유업계 입장을 발표하고 이러한 밀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협회 회원사들에 대해서도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면장 소진, 관리 상황을 자세히 재점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최근에는 높은 밀수마약 검사비용, 수급 지연 및 비용 증가하는 애로사항도 발생 증으로 파악되고 있다. '22.1.1~22.3.18 간 우리가 Quetzal항을 통해 수입한 컨테이너 107대 중 55대(51.4%)를 밀수 검사(DIPA 수행) 또는 마약검사(SGAIA 수행)하여, 신항인 TCQ를 통해 수입 시, 검사 비용이 건당 US\$320가량으로 매우 높고, 검사 평균 소요일도 배정부터 완료까지 5일 가량 소요된다는 문제점도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o MARITIMA EXPRESS, S.A.(MAREX)

주소	km 13 punto 50, Carretera a Barcenas 6-50, zona2, Villa Nueva, Guatemala, C.A.
전화번호	+502) 6671-7300
이메일	jooha.lee@marex.cc
홈페이지	http://www.marex.cc
비고	한인 대표(이주하 사장)가 운영하는 유일한 업체로 중미 전지역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 (SKYPE ID) Ricardo.lee95 * 2022년 5월 기준, 홈페이지 개편 증으로 상기 주소의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다.

o MAERSK GUATEMALA

주소	13 calle 3-40, zona 10, Edif. Atlantis, Of. 501-504, Guatemala, C.A.
전화번호	+502) 2379-7272
이메일	gmalogmng@maersk-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www.maersk.com/local-information/guatemala/
비고	머스크 그룹의 과테말라 지점으로, 무역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다.

○ TRANSMARES INTERNACIONAL, S.A.

주소	Diagonal 6, 10-01, zona 10, Edif. Las Margaritas, Nivel 8, Guatemala, C.A.
전화번호	+502) 2429-8191
이메일	mngtrans@transmares.net
홈페이지	http://www.facebook.com/transmaresinternacional/
비고	일본 통합법인 ONE의 현지 에이전트이다. 별도 홈페이지는 없으며 페이스북 계정만 보유하고 있다.

○ KUEHNE + NAGEL

주소	Diagonal6 10-50, Edificio Interamericas World Financial Center, Oficina 1204, Nivel 12, Guatemala, C.A.
전화번호	+502) 2364-5060
이메일	info.guatemalacity@kuehne-nagel.com
홈페이지	http://home.kuehne-nagel.com
비고	스위스계 글로벌 물류기업의 과테말라 지점이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투자 관련법 개요

○ 외국인 투자법

기존의 타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외국인 투자 관련 내용을 통합해 시행령(Decreto 9-98)호로 발표된 1998년의 외국인 투자법(Ley de Inversin Extranjer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투자가는 직접 또는 과테말라 국민이나 기업과 합작을 통해 투자하는 외국의 개인이나 기업을 의미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승인 철폐
-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전 재산권 인정 및 몰수, 내부적 2·3중 과세 금지
- 외국 기업은 과테말라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법의 보호를 받으며 과테말라의 법률 및 사법 시스템에 종속됨
- 교통, 무선통신, 위성통신 및 주택건축 분야에 대한 과테말라 국내 자본의 참여조건 폐지
-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one-stop 서비스를 위한 투자청(Invest in Guatemala) 설립
- 국내항공 및 육상운송 등에 대한 외국인 소유권 제한 철폐(2004년 개정법)

한편 1995년의 개정 중앙은행법(Ley Orgnica del Banco de Guatemala)에 따라 외국은행은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에 등록만 하면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 긴급고용법(19-2016)

WTO의 권고에 따라 기존의 임가공 수출장려법(마길라법, 29-89)과 자유무역지대법(65-89)은 2015년말부로 긴급고용법(19-2016)으로 대체되었다. 기존 마길라법 대비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 (중복혜택 불허) 동일기업 대상의 면세혜택(재허가) 갱신 불허: 명의 변경을 통한 반복적 혜택 제공을 불허하고 관리감독, 감시 강화
- (내수허용) 내수 판매를 허용하는 신규조항 추가: 단,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에 등록된 '서비스사용자'를 경유한 내수 판매 허용
- (원부자재 감시강화) 원부자재의 타 용도 이용 금지: 원부자재 소요량을 국세청(SAT)에 수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 발생(전자시스템 등록) → 수취 누락, 밀수 악용 시 관리소홀에 따른 벌칙 부여
- (고용주의무 강화) 사회안전청(IGSS)회비 납부 준수 의무 강화: IGSS 납부기록을 월별 제출하고, 노동부에 연간 직원명세서 제출 의무화, 노조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IGSS 미납 또는 위반사례에 대한 판결 확정 시 면세혜택 중지 등의 징벌적 조치 수반

또한 새 긴급고용법안은 혜택업종을 섬유산업 생산자(HS 11부 또는 50-63류), 서비스제공자(콜센터, SW개발)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기존 마길라법(29-89)이 아닌 다른 법을 적용받는 업종은 새 법령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새 법안은 기존 마길라법 대비 개선된 공정보완제도를 갖추고 있는데, 이전 법과는 달리 공동수출자, 하청계약자 모두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국내에서 조달하는 자재 또는 용역 구매에 대한 부가세 면세 혜택도 새로이 추가됐다.

긴급고용법(19-2016)은 기존 자유무역지대법(65-89)에 대한 개혁안도 포함하고 있는데, WTO 권고에 따라 혜택대상자의 명칭이 서비스사용자로 변경되며, 주류, 차량수입, 식음료/사료, 플라스틱,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혜택 제외 업종도 대거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법, 마길라법(시행령 포함) 또한 개정되어 발표되었다.

○ 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평가 시행령

과테말라에서는 2016년 “환경 평가, 관리, 모니터링을 위한 시행령(Acuerdo Gubernativo 137-2016, Reglamento de Evaluación, Control y Seguimiento Ambiental)”을 제정하고 환경 관리 및 모니터링 평가 시행령 준수 가이드를 통해 국내 환경의 지속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각 사업장은 환경부에서 허가한 환경컨설턴트 (Consultor Ambiental)에게 환경영향평가 신청을 의뢰해야 하며, 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 실사 후, 환경오염 영향도, 고용 인원, 사업장 규모, 산업 종류 등에 따라 환경부에서 분류한 업종별 요건에 맞게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후 업종별로 5일~90일 동안 서류 검토, 허가 또는 보완 서류 제출 요청 15일, 최종 검토 30일, 허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환경보험(seguro ambiental) 및 라이선스 비용(licencia ambiental) 납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불이행 시에는 업종 및 위반 항목에 따라 5천~10만 케찰의 벌금 부과될 수 있다.

업종별로 카테고리B1 중상위험군(대형 산업시설 등), 카테고리B2(중소규모 산업시설, 쇼핑몰, 식당 등), 카테고리C 저위험군 일반사업장(사무실, 식당, 가게 등) 등으로 구분되며 업종별로 환경보험 보장 금액은 카테고리B1 최대 1백만 케찰, 카테고리B2 최대 50만 케찰을 보장해야 하며, 카테고리C 업종은 환경보험 납부 의무에서 면제된다. 라이선스 비용은 현지화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7.8케찰 = 1달러)

- B1: (1년) 4,000 (2년) 8,000 (3년) 12,000 (4년) 16,000 (5년) 20,000
- B2: (1년) 1,500 (2년) 3,000 (3년) 4,500 (4년) 6,000 (5년) 7,500
- C: (1년) 100 (2년) 200 (3년) 300 (4년) 400 (5년) 500

2) 진출형태별 절차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국내기업(local company)을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기업의 경우는 Branch office, Agency 등의 구별이 따로 없다.

외국기업 설립 요건(상법 215조): 아래의 서류를 상업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장당 0.10케찰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외국기업 역시 주식회사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발표해야 한다(상법 216조)

-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
- 당해 기업(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명
-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 회사의 적법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테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모기업의 지점설치 의향서류)
- 과테말라 대리인(mandatario) 위임장(과테말라인 변호사)
-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U\$50,000)
-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 당해 기업, 법적 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기업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 과테말라 내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비용 납부 영수증 등

일반 주식회사(SOCIEDAD ANONIMA)는 MINEGOCIO.GT(<http://minegocio.gt>)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 가능하다. 이 사이트는 등기소, 국세청, 사회보험청(IGSS), 노동부와 연계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회원 가입 이후 부처별 신청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3) 법인 설립 관련 상법 개정 내용 요약

2018년 1월 1일부로 개정된 상법이 발효되었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40년 만의 상법 개정으로, 과거 한 달이 소요되던 설립 기간은 3일 내로(기존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최소자본금은 과거 5,000 에서 200과테말라 케찰로 대폭 줄이는 등 기업 설립 여건을 대폭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투자인센티브

1) 투자 인센티브 제도

과테말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과거 수출장려법(구. 마킬라법, 29-89)과 자유무역지대법(65-89)을 제정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봉제 등 임가공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법인세 면제, 부가세 유예/환급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2,500달러를 넘어서면서 WTO는 유예기간을 2015년 말로 설정하고 대체법안 마련을 과테말라 정부에 권고했고 2016년 3월 상기 2개 법령의 대체법 격인 긴급고용보호법(19-2016)이 발효되었다. 해당 법안은 1장: 법령 29-89 임가공수출장려법의 개정, 2장: 법령 65-89 자유무역지대법의 개정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시행령은 마킬라법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발표되고(대통령령 3-2017), 자유무역지대법 관련 시행령은 여전히 미제정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긴급고용법에 의거하여 섬유산업 및 BPO 업종에 대해 수출/내수와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령이 정의하는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 (중복혜택 불허) 동일기업 대상의 면세혜택(재허가) 갱신 불허: 그동안 묵인되어온 명의 변경을 통한 반복적 혜택 제공을 불허하고 향후 관리·감독, 감시 강화
- (내수허용) 내수판매를 허용하는 신규조항 추가: 단 자유무역지대에 등록된 '서비스사용자'를 거쳐 내수시장에 판매
- (원부자재 감시강화) 원부자재의 타용도 이용 금지: 생산에 사용된 원부자재 소진 내역 국제청 월간 보고(전자시스템 등록). 수치 누락, 밀수 악용 시 관리 소홀에 따른 벌칙 부여
- (고용주의무 강화) IGSS 보험료 납부 준수 의무 강화: 최근 3개월간의 IGSS 부담금 납부 기록 월별 제출, 노동부에는 연간 직원명세서 제출 의무화

이번 긴급고용법은 기존의 자유무역지대법을 개정하면서 자유무역지대 내 입주 가능 업종을 크게 축소할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멘트, 플라스틱, 의약품, 화장품, 건설자재, 가죽/신발, 농산물 등) 과테말라 국회는 동 법 개정을 통해 자유무역지대 입주 및 조업 가능 업종을 조정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법에 의해 허가를 획득했던 기존 입주기업에 관한 경과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생산/영업활동을 금지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투자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다.

아울러 긴급고용법(19-2016)이 보장하는 대표적인 혜택은 아래와 같다.

- 수입 관세(DAI), 수입부가세(IVA) 납부 유예
- 10년간 법인세 면제
- 기계 및 장비 수입관세 및 부가세 면제

2) 투자 장려 분야

- 농산물 가공

전통적 농업국인 과테말라는 전 세계 제5위의 설탕 수출국이며 과테말라산 아라비카(arabica) 커피는 국제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이 외에 바나나, 카르다몸(생강의 일종) 등도 주요 수출 품목이다. 이처럼 농업이 발달한 배경에는 정부와 Asazgua(과테말라 설탕협회) 등 민간부문이 상호 협조해 오랜 기간에 걸쳐 수행한 전략적 개발 노력이 있었다. 이에 따라 농업 부문의 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농산물 가공산업은 과테말라의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 분야이다.

농산물 가공분야 투자 시 유리한 점은 다음과 같다.

- 미국, 캐나다 등 북미(인구 3억 2,500만 명), 멕시코(1억 명) 및 중미(3,700만 명) 시장과의 지리적 근접성
- 360가지 이상의 미소(micro)기후에 따른 농산물 원자재의 다양성

- 농업분야의 풍부한 숙련 노동력
- 포장산업(플라스틱, 카톤, 유리 및 알루미늄 등) 발달
- 태평양 및 카리브해의 항구를 통한 화물운송 용이
- 관련단체(AGEXPORT 등) 지원 등

○ 제조 및 조립산업

현재 과테말라의 주요 제조업은 대부분 섬유봉제 및 식품생산 분야에 한정돼 있는데 향후 과테말라 정부는 전자, 자동차부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조립생산을 전략분야로 선정하고 DR-CAFTA를 활용,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다.

○ 콜센터 및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콜센터 및 BPO 산업은 과테말라에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외국인투자분야로, AGEXPORT에 따르면 ALLIED GLOBAL, ALORICA, ASISTENCIA G&T, ATENTO, AVALON, CAPGEMINI, CONDUENT, GENPACT, GRUPO PRONTO BPO, ICS, NEARSOL, ONELINK, TELUS INTERNATIONAL, TU SALUD GLOBAL, XEROX SERVICIOS COMPARTIDOS, 24/7 CUSTOMER 등이 진출, 영업 중이다. 과테말라 콜센터의 서비스지역은 과테말라를 포함한 중미, 멕시코, 미국 등이나 스페인, 캐나다까지 서비스하는 콜센터도 존재 한다. 과테말라는 중미지역에서는 비교적 첨단 기술과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콜센터/BPO 투자진출로 창출된 일자리는 콜센터 기준 36,900명가량으로 추산되며, 이 중 27,000여 명 정도는 영어/스페인어를 모두 구사하는 인력으로 보고 있다. 이는 콜센터 직무와 관련된 직접 고용으로만 제한한 것으로 관계된 업종의 간접고용은 약 10만여 명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 콜센터 및 BPO 위원회(Comision de Contact Center y BPO) 연락처
 - . (담당자) Gustavo Mendoza
 - . (E-mail) Gustavo.mendoza@agexport.org.gt
 - . (전화) +502) 2422-3400

○ 관광

과테말라는 1979년 UNESCO에 의해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Antigua시(중남미 도시 중 스페인 식민시대 모습이 가장 잘 보존돼 있음) 및 Tikal의 마야유적 외에도 이사발(Izabal) 호수 및 카리브 해안, 아티틀란(Atitlan) 호수, 빠까야(Pacaya) 화산 등 역사와 변화무쌍한 자연환경이 겸비된 관광자원을 보유한 나라이다. 관광업은 주요 성장산업의 하나이며, 관광객 수와 외화 수입이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관광산업의 부가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성형, 미용, 웰빙 문화를 접목한 의료 관광 산업도 부상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경우는 미국에서 드는 비용의 1/3 정도면 과테말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INGUAT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월-11월 연간 방문 관광객 수는 51만 957명으로 2019년 기준 약 256만 명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2022년은 관광객이 전년대비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인 당 평균 7일가량을 체류하며 전체 체류 기간 중 약 1,212달러를 소비하고 있다.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는 과테말라 시티(34%), 안티구아(25%), 파나하첼(14%), 티칼(8%) 등이며, 해외여행객 유입은 엘살바도르(45%), 미국(18%), 온두라스(7%) 순이다. 60% 정도의 여행객들이 호텔을 숙소로 정하고 있으나 2017년 기준 호텔 객실 수는 약 21,922실 정도로 각종 등급의 호텔 인프라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광분야 투자의 경우 관광법(Ley de Turismo/Decreto 1701, 22-71, 22-73, 68-85)에 따라 과테말라 또는 중미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자재, 건축자재, 관련 기계, 전기기구, 차량, 선박, 식탁용 철물, 가구 및 엔터테인먼트 장비 등의 수입 시 10년간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면제된다. 또한, 기존 구조물의 확장 또는 건물 신축 시 부동산세도 면제된다. 최근 과테말라는 관광산업육성을 위해 테마관광을 적극 개발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의료관광, 생태관광, 마야문명체험, 국제컨벤션 연계관광 등이다. 특히 과테말라의 경우, 미국보다 의료 비용이 1/3 수준으로 저렴하므로 다수의 미국인이 치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비만 수술, 심혈관질환, 안과, 재생의학 등의 분야 진료 및 치료를

위해 과테말라를 찾기 시작했다. 이들은 일반 여행객들보다 6배 높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4%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및 광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제정된 환경보호법(Ley de Proteccion y Mejoramiento del Medio Ambiente/Decreto 68-86) 및 재생 에너지 개발촉진법(Ley de Incentivos para el Desarrollo de Proyectos de Energia Renovable/Decreto 52-2003) 등에 의해 기계류 및 장비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소득세도 면제된다. 2003년 개정법에 의해 소득세 감면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수력, 지열,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발전(화력발전 제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자본재는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다.

- 원유 개발

석유 프로젝트의 경우 탐사 및 채굴 비용의 100%가 소득공제 가능하며 투자자들은 5년간 생산요소의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고 재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보증담보 없이 관세 부과도 유예된다. 또한, 해외에 외환보유가 가능하며 유전 발견 시 매장량 및 질에 따라 탐사 및 시추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도 있다. 현재 과테말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유업체로는 Perenco(프랑스), Petro Latina(영국), Petro Energy(멕시코) 등이 있다.

- 기타

카리브 해안지역의 주요 산업공단인 Santo Toms de Castilla 자유무역지대 및 CACAO 산업공단 등의 입주기업들은 수출입시 무관세 혜택을 받으며 공단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지방세도 면제를 받는다. 정부 승인을 받은 경우 12년간 소득세도 면제된다. 상기 공단 이외의 보다 소규모 산업공단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이 있다.

제한 및 금지(업종)

특별한 투자금지분야는 없으며 다음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한이 있다.

- 회계감사: 외국 기업이 직접 영업할 수 없으며 적법하게 설립된 과테말라 회계업체를 통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상법 213조).
- 보험: 외국 기업이 보험 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과테말라 상법상의 주식회사(S.A./ Sociedad Anonima)를 설립해야 한다(시행령 473호 1조). 그러나 DR-CAFTA(중미자유무역 협정) 회원국 업체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자신의 상호로 영업할 수 있다.
- 임업: 과테말라 삼림청(INAB/Instituto Nacional de Bosques)은 자국민 및 자국기업에는 삼림의 관리 및 개발을 위해 개발권을 부여하나 외국인에게는 부여치 않고 있다(산림법/시행령 101-96호). 이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 시에는 최소 2만 s/m 이상의 임야를 구입, 등기해야 한다.
- 부동산: 부동산이 주 사업분야가 아닌 한 외국 기업의 부동산 취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가 소유인 강, 바다, 국경지역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를 제한한다.
- 운수업: 지상운수업은 자본의 60%, 항공운수업은 51% 이상을 과테말라 기업이 소유하여야 한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대부분의 생산, 물류 관련 배후 자원이 과테말라시티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외국 기업의 지방 거점도시 투자는 전무하다. 명실상부한 과테말라 제2의 도시인 케찰테낭고(QUETZALTENANGO)만 해도 기업활동은 인근지 소비재 수요에 대응키 위한 제화, 제빵 등의 가내수공업에 국한되며 이하 지방도시들은 투자처로서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는 수준이다. 섬유 분야를 비롯한 제조업으로 국내외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곳은 비야누에바(VILLA NUEVA), 아마띠틀란(AMATITLAN), 팰린(PALIN), 에스퀀톨라(ESCUINTLA) 등 시티에 인접한 수도권 도시들이다.

임가공업과 같은 수출 관련 업종을 제외하고는 지정된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할 필요성이 크지는 않다. 특히 최근 발효된 긴급고용법(기존 마킬라법 대체법)이 자유무역지대 입주제한 업종을 대폭 확대하였는데, 내수 판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 중에는 자유무역지대 바깥으로 이전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수도인 과테말라시티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임차료가 급격히 상승하였고 교통 체증 심화, 오폐수 처리 등에 대한 자격 기준 강화 등으로 투자 입지로서의 매력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2018년 2월 12일 과테말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PRONACOM)가 발표한 2018-2032 국가경쟁력강화정책은 향후 전국적으로 9개 권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산업 클러스터, 개혁 과제 등을 기반으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9개 도시인데,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들을 포함한 배후지역의 투자 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9개 권역별 주요 도시는 아래와 같다.

- ① 안티구아(ANTIGUA, 관광)
- ② 산호세(SAN JOSE, 해운)
- ③ 케찰테낭고(QUETZALTENANGO)
- ④ 우에우에테낭고(HUEHUETENANGO)
- ⑤ 코반(COBAN)
- ⑥ 플로레스(FLORES)
- ⑦ 사까파(ZACAPA)
- ⑧ 푸에르토بار리오스(PUERTO BARRIOS, 해운)
- ⑨ 레탈올레우(RETALHULEU) 등"

산업단지

○ CIPLESA

규모	32,199.90 s/m
위치	37 Avenida 2-77 zona 7 Colonia El Rodeo, Guatemala
임차료	(s/m당 평균단가) 8.0 U\$/월(부가세 IVA 포함) * 임차료는 입주업체 개별 협상으로 상이해질 수 있음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CENTRO INDUSTRIAL PARA LA EXPORTACION, S.A. ○ 전화번호: +502) 2470-6900(ext. 1220) ○ 이메일: leticia.estrada@denimatrix.com ○ 담당자: LETICIA ESTRADA
비고	과테말라시티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이며,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인 타운에서도 가깝다.

○ ZONA FRANCA INSSA

규모	2,938.50 s/m
----	--------------

위치	Calzada Roosevelt 5-70 zona 2 de Mixco, Guatemala
임차료	(s/m당 평균단가) 6 U\$/월(부가세 IVA 포함) * 임차료는 입주업체 개별 협상으로 상이해질 수 있음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INVERSIONES NUEVO SIGLO, S.A. ○ 전화번호: +502) 2429-9050 / 2432-2884 ○ 이메일: administracion.zf@inssafreight.com ○ 담당자: JORGE RAMOS
비고	과테말라시티에 인접한 므스코시(MIXCO)에 위치한 소규모 단지, 한인 타운에서 가깝다.

○ SADINSA

규모	9,562.07 s/m
위치	26 Avenida 08-50 zona 4 de Mixco, Colonia El Naranjo, Guatemala
임차료	(s/m당 평균단가) 5.25 U\$/월(부가세 IVA 별도)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SAADE INVERSIONES, S.A. ○ 전화번호: +502) 2428-6900 (ext. 436) ○ 이메일: liz14209@hotmail.com ○ 담당자: LIZ QUIROA
비고	과테말라시티에 인접한 므스코시(MIXCO)에 위치한 산업단지이며,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ZOFRACRO

규모	9,650.00 s/m
위치	18 Avenida 40-23, Zona 12, Guatemala
임차료	(s/m당 평균단가) 3.00 U\$/월(부가세 IVA 포함)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ZONA FRANCA CROPA, S.A. ○ 전화번호: +502) 2462-4300 ○ 이메일: irene.ayala@zofracro.com ○ 담당자: IRENE AYALA
비고	과테말라시티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이며,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ZOFRACSA

규모	7,801.49 s/m
위치	33 Calle 27-01, Zona 12, Guatemala
임차료	(s/m당 평균단가) 6 U\$/월(부가세 IVA 별도)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기관: ZONA FRANCA ACTUALES, S.A. ○ 전화번호: +502) 2442-1694 ○ 이메일: zofracsa@yahoo.com ○ 담당자: OSCAR QUINONEZ

비고	과테말라시티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이며, 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산업단지 개별 접촉)>

주요 지역별 여건

○ 비아누에바(VILLA NUEVA)

- 면적: 112km²
- 인구: 598,295명
- 주: 과테말라주
- 주요 산업: 의류봉제 임가공업, 플라스틱 가공업 등
- 비고: 과테말라시티 인접 도시

○ 아마띠틀란(AMATITLAN)

- 면적: 204km²
- 인구: 124,111명
- 주: 과테말라주
- 주요 산업: 의류봉제 임가공업, 플라스틱 가공업 등
- 비고: 과테말라시티 인접 도시

○ 팔린(PALIN)

- 면적: 88km²
- 인구: 53,233명
- 주: 에스핀톨라주
- 주요 산업: 의류봉제 임가공업, 제약 등
- 비고: 과테말라시티와 산호세항을 잇는 CA-9고속도로 상에 위치

○ 에스핀톨라(ESCUINTLA)

- 면적: 332km²
- 인구: 168,277명
- 주: 에스핀톨라주
- 주요 산업: 사탕수수 재배 및 설탕생산 등
- 비고: 태평양 대표 항만인 산호세항(PUERTO SAN JOSE), 케찰항(PUERTO QUETZAL)과 근접 거리에 위치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1130.02	980.65	974.71	915.17	-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 대외 직접투자 현황표

(금액 : 백만\$)

2017	2018	2019	2020	2021
195.95	202.79	175.27	210.68	-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 한국기업투자 통계표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9	6	2	2,701	8	2,650
2020	5	3	1,732	5	1,629
2021	15	3	37,028	22	27,218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업종별 투자 동향표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6	2	2,701	8	2,65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5	3	1,732	5	1,629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1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제조업	11	1	31,858	16	22,558

건설업	1	0	0	0	0
도매 및 소매업	3	2	5,170	6	4,66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LG전자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지사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휴대폰, 가전, IT제품
모기업명	LG전자

○ 삼성전자

진출연도	2000
진출형태	지사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휴대폰, TV 등 가전
모기업명	삼성전자

○ 센텍사(CENTEXSA)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의류(봉제)
모기업명	세아상역

○ 한세 과테말라(HANSAE PINULA)

진출연도	200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니트 및 우븐(니트로 시작하여 우븐 공장(MODAS APPAREL)을 별도 인수하면서 취급 품목 확대)
모기업명	한세실업

○ 모다스 코톱(MODAS KOTOP)

진출연도	199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니트
모기업명	한솔섬유

○ 광림통상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섬유/의류
모기업명	광림통상

○ 신원 과테말라법인(Shinwon GT, S.A.)

진출연도	199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OEM 생산
모기업명	신원

○ 영신물산 과테말라

진출연도	2003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염색
모기업명	영신물산

○ 과테경우섬유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원단 생산
모기업명	경우섬유

○ 삼성제침

진출연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봉제기계용 바늘
모기업명	삼성제침

○ (주)제이시스 과테말라법인

진출연도	202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GIS, SW, 드론, 3D모델링, 철도 GIS, RnD, ICT사업
모기업명	(주)제이시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외국 기업은 국내 투자자와의 차별 없이 100% 자기자본으로 과테말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국내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을 설립하는 대신 외국 기업으로 등록을 희망할 경우에는 상법 215조가 정한 제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Branch Office나 Agency 등의 구별이 따로 없다.

보통 현지 법인은 상법 215조 상의 합명회사(Sociedad Colectiva), 유한회사(Sociedad de Reponsabilidad Limitada), 주식회사(Sociedad Anonima),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주식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를 의미하며, 지사는 상법 215조 상의 외국 기업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임시법인(Sociedad Temporal)과 영구법인(Sociedad Indefinida)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형태에 따라 필요 서류나 절차가 다르므로 법인 등록 이전에 정하여 이에 맞춰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임시 법인의 경우는 최대 2년 간 운영이 가능하며 상업등기로 등록 시 별도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기업이 대표자를 과테말라인으로 임명할 경우 최소 자본액 200겔로 과테말라 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 하며 투자 보증금 50,000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 외국 기업으로 등록할 경우, 외국투자자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으로 등록한다.

지사

현지에서는 지사를 SUCURSAL DE SOCIEDAD EXTRANJERA로 부른다. 외국 기업 설립 시 유형은 지사(SUCURSAL) 또는 대리점(AGENCIA)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구분은 따로 없다. 상법(CODIGO DE COMERCIO) 215조(ARTICULO 215)에 따르면 외국 기업 설립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
- 당해 기업(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명
-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 회사의 적법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테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모기업의 지점설치 의향서류)
- 과테말라 대리인(mandatario) 위임장(과테말라인 변호사)
-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U\$50,000)
-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 당해 기업, 법적 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기업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 과테말라 내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 등기비용 납부 영수증 등

모든 서류는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특히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당 10달러씩 과테말라 외교부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 제출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상업 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에 납세자번호(NIT)을 신청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 모기업의 설립 등기 관련 서류 등

연락사무소

과테말라 상법(CODIGO DE COMERCIO)에는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나.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투자진출시 유의사항

1) 투자위험도

과테말라 투자 시 사회 및 정치적 불안정, 열악한 기반 시설,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 빈곤 및 보안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중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국가로 인식되는 과테말라는 이웃 국가보다 더 강력한 펀더멘털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 소비는 미국의 해외 송금으로 뒷받침되는 국내 수요의 주요 요인이다. 2021년 예산 계획에서 크게 축소된 최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2020년 11월 시위 이후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인플레이션은 유가가 여전히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를 1.75%로 유지하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회복 계획에 대한 개혁과 전세계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여전히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류의 경우 외부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며, 농산물은 보다 탄력적이어야 하고 인프라는 건설 부문에 수혜를 주는 회복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IMF, 미주경제협력은행, 미주개발은행, 세계은행으로부터 확보한 국채와 다자간 차관 덕분에 과테말라의 부채는 상당 부분 통제될 것이다.

과테말라 정부는 사업자 신속등록 시스템, 건축허가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통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등록 절차 및 건축허가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IGSS) 온라인 납부시스템도 도입하는 등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투자 및 사업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긴급고용보호법에 따른 섬유산업과 콜센터산업에 대한 법인세 혜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으며, 기 투자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권리보호가 미약하고 정부나 담당자의 교체 시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관이나 세무당국, 노동부 등의 자의적인 법집행과 부패로 인한 애로가 크다.

2) 투자 애로사항

과테말라 헌법은 사유 재산을 보유하고 사업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인정한다. 외국 민간 기업은 현지에서 인정되는 학력을 가진 전문가만 제공할 수 있는 일부 전문 서비스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유형의 비즈니스 이익을 자유롭게 설정, 취득 및 처분할 수 있다. 외국 기업은 과테말라 회사와 계약 또는 기타 관계를 통해 해당 국가에서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 회사와 같은 다른 외국 회사는 과테말라에서 완전히 자본화 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과테말라인과 동일한 사용, 혜택 및 재산 소유권을 향유하지만 과테말라 법은 외국인이 강, 바다 및 국경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외국인 투자자의 합작 투자나 현지 기업 인수에 지장이 없으며, 공개 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개발되고 유동적이며 효율적인 자본 시장이 없기 때문에 공개 시장에서 주식을 인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외국 기업은 현지 법인을 통해 운영됩니다.

통신, 전력 생산, 항공 또는 지상 운송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은 2004년 1월 국내항공사와 지상운송회사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을 없앴다.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적 대우는 없으나 보통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대금결제 능력검증, 자본금 납부 여부, 재무제표의 제출, 철수 전 의무사항 이행각서, 현지 대표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허가 기간이 내국기업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일 처리 습관이나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까지 관공서의 일 처리 속도는 느린 것이 일반적이며 현지인들도 일처리가 늦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서류는 약 5일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서류의 경우에는 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 걸린다.

등기소에 서류를 등기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도 5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기도 한다. 세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2일 내에 통관을 원칙으로 하지만 서류상의 하자나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된다. 서류의 공증은 약 5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된다.

3) 분쟁해결

과테말라는 중재 판정의 후속 집행을 인정하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서명 국가이다. 또한 국제 상업 중재에 관한 미주 협약(Inter-America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국민과 국가 간의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 협약 회원국이다.

	<p>Arbitration)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국민과 국가 간의 투자 분쟁 해결에 관한 국제 협약 회원국이다.</p> <p>과테말라의 외국인 투자법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대안적인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과테말라 상공회의소(CENAC) 중재 및 조정 센터와 과테말라 상공회의소(CRECIG) 분쟁 해결 위원회(CENAC)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enter of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of the Guatemalan Chamber of Commerce (CENAC) Address: 10ma. Calle 3-80 zona 1 Edificio Cmara de Comercio de Guatemala 4to. Nivel Tel: +502 2417-2700 Email: info@cenac.com.gt Website: www.cenac.com.gt ◦ Conflict Resolution Commission of the Guatemalan Chamber of Industry (CRECIG) Address: Ruta 6, 9-21 zona 4 nivel 12 Cmara de Industria de Guatemala Tel: +502 2380-9021 Email: crecig@industriaguatemala.com Website: www.crecig.com.gt <p>1995년 과테말라 중재법은 국제 무역법 위원회(UNCITRAL) 모델법을 국제 중재 규칙의 기초로 사용한다. 사법은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만 판결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종적이어야 하고 합법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p>
--	--

다. 회사 유형

주식회사

과테말라에서는 SOCIEDAD ANONIMA(약어로 S.A.), 즉 익명 회사를 주식회사로 일컬으며 과테말라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형태이다. 주식회사에서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등록자본금, 납입자본금으로 분류되며 수권자본금은 자본의 증가없이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이며 등록자본금은 출자자들이 증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인데 각 주주는 약속한 금액의 최소 25%를 납입해야 한다. 납입자본금은 실제로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정관 제정을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주주, 최소 200케찰 이상의 초기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공증변호사가 주식회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본금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 주주들은 초기자본금을 은행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회사의 자산은 주식으로 표시되며 이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이 돈세탁에 악용됨에 따라, 무기명 주식의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현재는 모두 기명주식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주식회사는 MINEGOCIO.GT라는 전자정부 플랫폼을 통해서도 쉽게 신청 가능하다. 이 사이트는 등기소, 국세청, 사회보험청(IGSS), 노동부와 연계된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회원가입만 하면 부처별 행정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http://minegocio.gt>).

유한책임회사

SOCIEDAD RESPONSABILIDAD LIMITADA(약어로 LTDA. / CIA. LTDA)로 일컫는다. 최소 2인에서 20인까지의 주주 구성이 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다만, 출자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주식을 통해 지분 양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과테말라 현지에서는 매우 드문 기업 설립 형태이다.

개인사업자

EMPRESA INDIVIDUAL로 일컫는다. 투자자 수는 소유주 1인이어도 무방하며 최소 자본금은 2,000 과테말라 케찰이면 가능하다. 개인 자산과 회사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가 회사의 부채에 대해 전적으로 무한 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기타

이 밖에도 합명회사(SOCIEDAD COLECTIVA), 합자회사(SOCIEDAD EN COMANDITA SIMPLE), 합자주식회사(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등이 상법상 가능하다. 그러나 대개 주식회사(S.A.) 설립을 선호하며 기타 유형의 회사 설립은 매우 드문 편이다.

라. 회계/법무법인 안내

◦ Bufete Cuestas PPQ (Abogados y Notarios)

전화번호	+502) 2383-2100
주소	19 Calle 5-47, Zona 10, Edificio Unicentro, 8 nivel, Oficina 801,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cuestasppq.com
이메일	info@cuestasppq.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중미 전체를 대상으로 법률 자문 서비스가 가능한 로펌이다.

◦ Central Law

전화번호	+502) 2383-6000
주소	Av. 15. 18-28, zona 13, Of. 101, Guatemala City,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central-law.com
이메일	jpcarrasco@central-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코스타리카를 시작으로 중미/도미니카공에 진출한 중미지역 최대 로펌이다.

◦ Alegalis

전화번호	+502) 2503-3777
주소	2da Calle 24-00 Zona 15, VH II, Edificio DOMANI, Oficina 701, Guatemala, Guatemala, C.A
홈페이지	http://alegalis.com

이메일	kbouscayrol@alegali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중미 전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LEGIC그룹 산하 과테말라 로펌이다.

○ Asensio Andrade Flores(SFERA)

전화번호	+502) 2317-1515
주소	P7a. Avenida 5-10, Zona4, Centro Financiero, Torre I, Nivel 10, Oficina3, Guatemala
홈페이지	http://aaflaw.com/en/
이메일	ignacio.andrade@aaf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코스타리카 SFERA 로펌그룹과 연계된 현지 법무법인이다.

○ BLP(Business Law Partners)

전화번호	+502) 2225-7000/2225-7050
주소	Diagonal 6 10-50, Zona 10, Edificio Interamericas, Torre Norte, Oficina 801., Ciudad de Guatemala,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blplegal.com
이메일	amartinez@blplega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코스타리카를 시작으로 중미 각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국적 로펌이다.

○ DELOITTE

전화번호	+502) 2384-6500
주소	Europiazza World Business Center, 5a Avenida, 5-55 Zona 14, Torre 4, Nivel 8,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2.deloitte.com/gt/es.html
이메일	kromero@deloitt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글로벌 회계법인이나, 회계 관련업무 외에도 법인 설립 관련 법률 자문도 가능하다.

○ EY Ernst & Young

전화번호	+502)2386-2400
주소	Eurolplaza World Business Center, Penthouse Torre I , Pisos 19 y 20, 5 avenida 5-55 zona 14, Ciudad de Guatemala 01014
홈페이지	https://www.ey.com/es_gt/services
이메일	mirla.tubac@gt.ey.co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영국 Ernst &Young Global Limited (EYG) 그룹 법무법인으로 , 언스트 앤 영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딜로이트, KPMG와 함께 세계 4대 회계법인을 이루는 대형 회계법인이다

○ KPMG

전화번호	+502)2291-5100
주소	7 Avenida 5-10 Zona 4 Centro Financiero Torre 1 Nivel 16, 01004 Ciudad de Guatemala
홈페이지	https://home.kpmg/xx/en/home/services.html
이메일	dpinillos@kpmg.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세계 4대 회계법인을 이루는 대형 회계법인으로, 과테말라 세금 관련 자문도 가능하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5.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과테말라는 1980년대 말부터 외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1년 5월기준 외환과 관련된 제한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1989년 과테말라는 환율 자유화 조치를 단행,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외채 지분을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 시 자유시장 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후 중앙은행은 은행 간 거래, 세금, 관세산정 등의 목적으로 일일 고시 환율을 발표하고 있다. 다만, 중앙은행은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참여하여 외환을 사고파는 미세 조정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해외 가족 송금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개입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과테말라 중앙은행은 과도한 현지화의 평가절상을 막을 목적으로 꾸준히 시중의 달러를 매입해 왔다. 2021년 과테말라 외환보유고는 20,939.6백만달러를 기록했다.

이후 1993년에는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시행, 외환거래에 대한 일체의 규제가 없어졌다. 단, 외환 거래는 인가된 금융기관(은행, 환전소, 제2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해야 하고 내역을 중앙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자율권 및 시중은행 감독기능 등을 강화한 1995년의 개정 중앙은행법(Ley Orgnica del Banco de Guatemala)은 2만 과테말라 케찰(약 2,703달러)까지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며 이 법에 따라 외국은행 진출도 가능하게 됐다. 1998년의 외국인투자보호법(Ley de Proteccion a la Inversin Extranjera)은 과실송금 및 투자 자본 회수에 관한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2001년의 외환거래법(Ley de Libre Negociacin de Divisas)은 수출 대금의 중앙은행 매각을 폐지했으며 국내 외 외환계좌 보유도 허용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환리스크를 감소시켰다. 55년간 지속된 구 화폐법을 개정한 2002년의 개정화폐법(Ley Monetaria)은 개인 또는 법인 간 임금 등 각종 계약상의 지급을 외환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외환 규제

과테말라 금융통화위원회(Junta Monetaria)는 불법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외환거래규정을 2010년 10월 13일 개정(Resolucion JM 108-2010),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외화 현금의 은행 예치를 1개월 내 3천 달러 이하(또는 상당액)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3,000달러 이상 입금 시 1) 자금출처 합법성 및 투명성 확인서류, 2) 입금자(기업)가 외화 현금을 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은행마다 재량권에 따라 보다 엄격한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외환 거래가 잦은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과테말라 제1의 은행인 Banco Industrial은 미화 거래를 월 2,000달러로 제한하고 있으며, Banco G&T는 1,500달러로 더 적다. 이보다 한도가 낮거나 더 까다롭게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은행도 많고 심지어는 20달러 화폐 교환에도 제한을 두는 은행도 많아 실제 은행 창구에서 자유로운 외환 거래에는 제약이 많은 편이다.

환율정책에 있어서도 중앙은행이 환율 조절을 목적으로 연 5억 달러 이상을 매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과테말라는 투자자본의 사전신고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본회수에도 제한이 없다. 그러나 청산 시에는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a)에 재정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과실송금의 경우 이윤 또는 배당금의 송금 역시 제한이 없으나 통계 목적상 중앙은행에 통보해야 한다. 국내 거주 기업이 법인세(순수익의 31%)를 납부한 경우 배당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배당금 송금 시 10%가 원천 과세되며 배당금 및 이자소득에 대해 추가로 10%가 부과된다.

로열티나 수수료 지급 또는 그러한 계약의 기간 및 조건 등에 제한은 없으나 송금 업체는 지급 내역을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과테말라 비거주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서 로열티 지급 또는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사용료 지급 시 31%가 원천 과세된다. 라이선스 관련 수수료, 수당, 커미션 등에 대해서는 10%가 과세된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7.65과테말라케찰(2022년 5월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0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37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2
비고	<p>대졸 사무직 초임은 현지기업,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월급 기준은 영어 구사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치이며, 현지 기업의 경우 800달러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급여 수준은 영어 구사력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하는 국제기구나 다국적 제약회사 등은 평균 임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한다.</p> <p>과테말라 최저임금은 농업분야, 비농업분야, 마킬라 생산직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며 고졸 생산직 초임은 마킬라 생산직 월 급여를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최저임금(시간당, 달러)은 비농업분야(일반직)을 기준으로 계산했다.</p> <p>- 농업: Q2,742.37 (약 358달러) - 비농업: Q2,825.10(약 369달러) - 마킬라 생산직: Q2,581.77(약 337달러)</p>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과테말라노동부(MINISTERIO DE TRABAJO Y PREVISION SOCIAL)>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공장설립 당시에는 사규 1부 및 각 근로자와 체결한 고용 계약서를 작성해 노동부(노동총국/Direccion General de Trabajo)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사회 보장 기구(IGSS/Instituto Guatemalteco de Seguridad Social)에 보고해야 한다. 대부분 투자 업체에서는 관련 업무를 현지인 노무사에게 일임시켜 처리하고 있다. 개별적 고용 시 고용계약은 근로 관계 개시일에 서명해 15일 이내에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채용 후 계약의 갱신 또는 수정이 있는 경우 매번 별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해 노동부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회보장기구(IGSS)에는 매달 인원 변화를 보고해야 한다.

노동법 제28조에 따르면, 노동계약 체결 시, 계약서 1부는 사업주가, 다른 1부는 노동자가, 또 다른 1부는 노동부가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며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명, 나이, 성별, 혼인 여부, 국적, 주민등록번호
- 근무 시작일
- 근로조건, 특징, 근로내용
- 근무장소
- 노동자의 거주지(원래 거주지와는 다른 장소로 이주해 근무해야 할 경우)
- 계약 유효기간, 계약 종료일 또는 약정일
-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의 종류
- 급여, 복지, 급여지급 방법, 기간, 장소
- 노동계약 체결장소 및 일자
- 계약당사자 서명 및 주민등록번호

1) 외국인 고용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법적으로는 반드시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는 노동부(Ministerio de Trabajo) 내 고용총국(Dirección General de Empleo)에 신청한다. 외국인 고용은 해당 업체 총 고용인원의 10%,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단, 과테말라 내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인력은 예외이다. 노동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근로에 투입할 수 있다. 노동허가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는데 만료일 15일 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의 업체 실사 또는 미국 바이어의 공장 실사 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취득 여부를 따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동허가 취득은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허가 취득을 위한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피고용인의 여권 전체 사본(만약 여권에 거주 비자가 없을 때는 이민국에서 발급한 비자 절차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대체)
- 사업주의 신청대리인 신분증 사본과 회사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
- 고용기간 동안 해당 외국인 노동자의 행동에 대해 책임진다는 사업주의 선서진술서(변호사 공증 필요)
- 공인회계사가 발급한 회사의 내국인 및 외국인 노동자 수와 급여 비중에 대한 증명서. 이때 경영총, 매니저, 관리자, 감사, 부서장 등의 관리인력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 외국인 법인대표 임명장 사본
- 스페인어를 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 출신 외국인의 경우, 스페인어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입증하는 선서진술서
- 허가신청수수료 납입증명서

2) 기술인력 고용

과테말라 내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인력의 고용 시 상기 서류 외에 기술자격증명서(San Carlos 대학 또는 관련 단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관련 서류 포함)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과테말라 노동자의 교육훈련 계획도 제출한다.

3) 일반 노동자 고용

일반 노동자 고용 시에는 상기 서류 외에 당해 노동자가 최근 근무한 기업에서 발행한 추천서(과테말라 영사 서명 필요)도 제출한다.

근로시간

1) 정규 근로

주간 근로(6~18시)는 1일 8시간, 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비록 과테말라 노동법은 주당 48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우선하는 과테말라 헌법 제102조는 44시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에 따른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강을 해치지 않거나 위험하지 않은 환경인 경우 주간 근로를 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주당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농업, 목축업 및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주당 44시간을 지켜야 한다. 야간 근로는 1일 6시간, 주당 36시간, 주간 근로와 야간 근로가 혼합된 혼합 근로는 1일 7시간, 주당 4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장 근로

정규 및 연장 근로를 합쳐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보안 및 경비분야 예외). 다만 근로자가 정규 근로 시간 중 발생한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작업하는 시간은 연장 근로에 포함하지 않는다.

휴가

1) 유급휴가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된다. 1주의 기준은 회사에 따라 5일 또는 6일로 정한다. 국가가 지정하는 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포함된다. 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유급 휴일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 수당(기본급의 50%)이 지급되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동일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한 각 연도에 대해 최소한 15일의 유급휴가를 을 권리가 생긴다. 다만, 농축산업 종사자는 10일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간 150일을 근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되지 않으나, 휴가를 위한 근로일수가 충족되기 이전 또는 휴가권을 얻기 이전에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일에 비례하는 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 출산휴가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 30일과 출산 후 45일간 100%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부여받는다. 출산 전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는 출산 이후로 이월된다. 수유 기간에는 하루 두 차례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3) 경조/기타휴가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 3일, 결혼 5일, 남성 근로자의 경우 자녀 출생 시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유급휴가를 허용한 경우도 인정된다.

해고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로 해고 시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해고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노동법 제77조에 의거, 정당한 해고가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 노동자가 근무시간에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사업주와 동료에게 피해를 끼치고 회사업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 직원이 사업주 또는 동료, 회사 내 제 3자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또는 의도적인 부주나 과실로 기계, 장비, 원자재, 상품 기타 관련 물품을 손상시킨 경우
- 직원이 회사의 기술 또는 사업상의 기밀, 제품생산 및 운영과 관련된 기밀을 유출한 경우
- 2일 연속 또는 1개월간 6일 반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결근사유는 업무복귀 시 또는 결근 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함)
- 사고 또는 질병을 예방하려는 조치에 대해 거부할 경우 또는 직원이 업무의 효율성 및 명확성 증대를 위해 업주 또는 상사가 내리는 지시를 거부할 경우
- 다음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 업주 또는 상사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 근무 중 또는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 또는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활동, 또는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한 경우 및 기타 비정상적인 심신상태하에서 근무한 경우
 - 업주가 제공한 물품 또는 장비를 원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적으로 허가된 경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 중 또는 회사 내에서 무기를 소지한 경우
 - 기타 노동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및 회사의 생산을 방해하는 태업행위
- 노동부에서 허가한 사내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한 차례 이상 서면으로 경고한 경우와 근무 중 술에 취해 타인의 안전 및 생명, 업주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별도의 경고조치 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다.
- 노동자가 능력과 경험에 대해 업주를 속여 계약서에 명시된 바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및 노동자가 허위로 정보를 기재하여 작업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증명될 경우
- 노동자에게 사법당국에 의해 체포명령이 떨어지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 노동자가 계약에서 정해진 약속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임의로 해고하는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한 피해보상으로 한 달 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만일 재판절차로 넘어간 후 패소할 경우에는 두 달 치 급여에 준하는 금액을, 이후 재판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월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6개월분까지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퇴직금

1) 퇴직정산금(Pago de Prestaciones Laborales)

정당한 사유로 해고 시에는 아래와 같이 퇴직정산금을 지급하고 고용계약 해지서(Finiquito Laboral)에 노사 간 서명, 보관해야 한다.

- 당해 월 급여(근무일수 기준)
- 미휴가 일수 : 연간 15일 기준 1개월 급여(최근 6개월 급여 평균치)로 환산 지급
- Bono 14 및 Aguinaldo : 연간 1개월 급여(최근 6개월 급여 평균치) 기준 근무 일수로 환산 지급

2) 해고수당(Indemnizacin)

정당한 사유 외의 사유로 해고 시에는 퇴직 정산금 외에 해고수당을 지급한다. 해고수당은 근무기간 1년당 1개월 급여(최근 6개월 급여 평균치)를 지급하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해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고당하기 위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상여금

대출 사무직 초임은 현지기업, 국제기구, 다국적기업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월급 기준은 영어 구사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치이며, 현지 기업의 경우 800달러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 급여 수준은 영어 구사력에 크게 좌우되는데, 이런 인재를 필요로 하는 국제기구나 다국적 제약회사 등은 평균 임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한다.

과테말라 최저임금은 농업분야, 비농업분야, 마킬라 생산직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며 고졸 생산직 초임은 마킬라 생산직 월 급여를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최저임금(시간당, 달러)은 비농업분야(일반직)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 농업: Q2,742.37 (약 358달러)
- 비농업: Q2,825.10(약 369달러)
- 마킬라 생산직: Q2,581.77(약 337달러)

다. 사회보장제

건강보험

사회보장보험(IGSS)으로 일원화 되어 있다(국민연금 항목 참조).

고용보험

해당사항 없음.

산재보험

사회보장보험(IGSS)으로 일원화 되어 있다(국민연금 항목 참조).

국민연금

사회보장보험(IGSS)은 업무상 상병, 질병/출산, 노후연금, 사망 시 유족연금 등을 모두 포괄하는 성격의 단일 공적보험이다. 3인 이상 작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회보장보험(IGSS)에 반드시 가입시켜야 한다. 동 보험의 근로자 부담은 월 급여의 4.83%, 사용자 부담은 10.67%로 각 근로자당 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다.

기타

사용자는 이외에 근로자 휴양시설(IRTRA) 관리비와 근로자 기술훈련비(INTECAP)로 각 노동자 월 급여의 1%씩을 부담한다.

7. 세무

가. 조세제도

법인세

과테말라 국내외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법인 및 개인은 과테말라 내에 보유한 자본 및 자산 또는 과테말라 내에서 이루어진 서비스 및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Impuesto sobre la Renta)를 납부한다. 세율은 조세법에 따라 순이익의 25% (중소기업 경우 5~12%) 또는 총수입의 7% 중 1가지를 택해 납부한다. 동 세율은 2015년 확정된 것으로 2022년 5월 기준 추가 변동은 없다.

- 통상 1분기 순소득을 근거로 추정 세액을 매 분기별로 납부한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표준 회계 연도는 2020년과 동일하지만 사전승인을 얻어 별도의 회계 연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자본 이득은 소득으로 처리되며 10%가 부과된다(비거주자의 지분매각에 따른 자본 이득도 동일). 자본 손실은 자본 이득이 있는 경우에 세금공제 가능하다.

- 기타 법정 원천징수율을 보면, 지점이윤/로열티/특허권 및 상표권 수수료는 31%, 배당금은 10%, 이자/라이선스 비용은 해외 송금 시 10%를 부과한다.

- 감가상각의 경우 정액 감가상각만을 인정하며, 자산별 감가상각률은 아래와 같다.

- 건물 : 매년 5% 이내
- 삼림/과수/농작물 : 15%
- 가구 및 비품 : 20%
- 기계장비 및 운송장비 : 20%
- 공구, 컴퓨터 장비 : 33%
- 기타 자산 : 10%

한국과 과테말라 간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조세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과테말라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의류봉제 수출기업으로 일명 마킬라법(29-89)에 따라 10년간 법인 소득세를 면제받아 왔으며 2016년부터는 긴급고용보호법(19-2016)에 따라 기존 면세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다. 그러나 긴급고용보호법 시행 시 고용 관련 각종 보고 의무 및 사회보장세 납부 의무 등 면세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대폭 강화되어 주의가 요망된다.

개인소득세

과테말라의 개인소득세는 타 중남미 국가와 비교해볼 때 많은 편은 아니다. 거주자/비거주자를 불문하고 과테말라 내에서 발생한 소득(계량화 가능한 부가급부 및 자본 이득, 자본 손실 포함)에 대해 부과하며, 사회보장보험에서 수령하는 해고수당(Indemnizacion) 혹은 사망 위로금, 회사에서 수령하는 해고수당, 영수증이 첨부된 여비, 법정 상여금(Bono 14, Aguinaldo)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개인소득세율은 공제 이후 소득이 0~30만 케찰인 경우 5%, 30만 케찰 초과분에 대해서는 7%를 부과하는데 공제 내역 및 상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기본 공제 48,000 케찰 (증빙 불요)
- 부가세 납부액 12,000 케찰 (실 소비액 기준으로는 112,000케찰로 증빙 제출 필요)
- 기부금(증빙 필요, 과세소득의 최대 5% 한도)
- 사회보장보험 납부액
- 개인 보험납부액

예시) 월소득 7,000과테말라 케찰의 경우 연간 소득세

- 연소득 84,000 케찰
- 공제액: 63,912.36
 - 기본공제: 48,000 케찰
 - 사회보장보험 납부액: 3,912.36 케찰(326.03과테말라 케찰*12)
 - 부가세 납부액: 12,000 케찰
- 공제 후 과세소득: 20,087.64 케찰
- 소득세: 1,004.38 케찰

자본소득세는 10%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및 서비스의 매매, 수입, 리스 등의 거래가격에 과세되며 세율은 12%이다.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상업 송장 가액 기준으로 과세된다. 과테말라 부가세법 제16조에 의거, 부가세 환급은 수출업체 또는 면세혜택자(외교관 등)에 대한 서비스 판매업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외국 업체와 거래 시 부가세 면세 제도가 없다. 2004년 개정법 및 2006년 탈세방지법이 정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식회사에 대한 자산 양도 및 2년 미만의 중고차 구입 시 부가세 납부
- 월수입 10만 케찰 이상인 수출업체의 경우 공급업체에 대해 부가세 징수
- 신용·현금카드 업체는 모든 거래에 대해 부가세 원천납부
 - 5만 케찰을 초과하는 모든 지급은 현금 지급 불가하며 은행 시스템을 통해 지급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금부과 사례는 없으나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유예 혜택을 받는 수출기업들에 대해 수출용 원자재의 사후관리 상 문제 등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부 섬유업체들이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류를 내수시장에 판매한 사례를 적발하거나 수출용 원자재로 위장하여 내수용 물품을 수입한 밀수사례가 적발되는 등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면세나 유예제도 적용 대상인 수출기업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 중에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과테말라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 회사와 개인에게도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있다. 또한 회사 설립 이후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특별소비세

1) 화석연료유통세(Impuesto a la Distribucion de Petroleo Crudo y Conbustibles Derivados del Petroleo)

법령 Decreto 38-92에 따라 부과되며, 세율은 고급휘발유/항공유 4.70케찰/갤런, 일반휘발유 4.60케찰/갤런, 경유 1.30케찰/갤런이다.

2) 주류유통세(Impuesto sobre la Distribucion de Bebidas Alcoholicas Destiladas, Cervezas y otras Bebidas Fermentadas)

법령 Decreto 21-2004에 따라 부과되며, 맥주/곡물 발효주(HS 2203.0000)는 소비자가의 6%, 와인류(HS 2204 및 2205)는 7.5%, 증류주(HS 2208)는 8.5% 세율이 부과된다.

3) 담배세(Impuesto al Tabaco y sus productos)

법령 Decreto 61-77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1보루(10갑)당 판매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부가세 별도)

4) 시멘트유통세(Impuesto a la Distribucion de Cemento)

법령 Decreto 79-2000에 따라 부과되며, 42.5kg 단위 포대당 1.50케찰의 세율이 부과된다.

기타

1) 관광세

과테말라 정부는 호텔 투숙자에 대해 관광세 10%를 부과한다. 단, 매 30일간 연속적으로 투숙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관광세를 면제해 준다. 예를 들어 75일간 투숙한 경우에는 1~30일째 1회차 면제, 31~60일째 2회차 면제되며, 61~75일째의 15일간에 대해서는 관광세 10%를 납부해야 한다.

2) 지방세

우리나라의 주민세에 해당하는 Arbitrio Municipal이 있으며 지방정부에서 개인소득에 따라 연간 최저 4케찰에서 최고 100케찰까지 과세한다.

3) 최초등록세(IPRIMA, Impuesto Especifico a la Primera Matricula de Vehiculos Terrestres)

과테말라 정부는 자동차 수입 관세를 폐지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내국세인 최초등록세(IPRIMA)를 2012년 7월 1일부터 부과하고 있다. 신차, 중고차와 관계없이 과테말라로 입국하여 처음 등록되는 모든 종류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며, 일단 등록세가 납부된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또는 재등록을 사유로 재차 부과되는 성격의 세금은 아니다. 차종별로 세율이 다르며 관광 및 스포츠 목적의 5인승 차량의 경우 20%, 6~9인 차량은 18%, 10인 이상 차량은 16% 등으로 구분된다.

4) 단결세(ISO/Impuesto de Solidaridad)

2008년 말까지 시행된 평화협정세(IETAAP)를 대체해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순 자산 또는 순수익 중 높은 금액을 대상으로 분기별 부과되며 세율은 1%이다. 총소득의 5%를 매달 납부하는 법인세 납부방식을 택할 경우에는 단결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는다.

5) 인지세

민사 또는 상업상의 계약에는 서류 등록비용의 3%에 해당하는 인지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외국 공급업체의 상업 송장, 수입서류 또는 이미 해당 세금을 납부한 확정가격의 행위 및 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는 면세된다.

6) 재산세

과테말라 재산세(토지, 건물 등 부동산 및 기계류 포함)는 자산 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되며 주택저당권 매입 시에는 3% 세금이 부과된다.

- 2,000~20,000케찰: 0.3%
- 20,001~70,000케찰: 0.6%
- 70,001케찰 이상: 0.9%

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과테말라 정부는 1998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고(2000.11.1.일 발효), 2000년에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미국은 과테말라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DR- CAFTA 수준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과테말라 국회는 2005년 기존 산업재산권법의 개정 법안 및 2000년 지식재산권법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실용신안은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형태, 색상, 디자인, 직물 등 미적이나 장식적인 특징을 갖춘 공업 제품 또는 수작업 제품으로 2차원적인 것에 해당하거나 3차원적인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것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출원 후 15년이다.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호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장인 문자, 이미지, 기호, 소리, 향기, 글자, 숫자, 색채 및 색채의 조합 및 3차원적인 상품은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한편, 과테말라의 저작권은 도서, 음악 작곡, 조각, 컴퓨터 프로그램 등 예술, 문학, 과학적 작품 등에 관한 권리를 비롯하여 작품의 창작, 구현, 전파에 공헌한 자의 권리까지 보호한다.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하여 등록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며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5년간 존속한다.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일반약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특허권자는 일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제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 생산자나 밀수자에 대해서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징역 또는 1천 케찰(quetzal)에서 최고 50만 케찰까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으로 물건압수 및 체포가 가능토록 하였다.

한편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약품 및 농업용 화학제품의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도 5년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과테말라 정부의 노력은 10년 전보다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 에 따르면 과테말라 내에 미국으로부터 송신되는 케이블TV 무허가 사업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약 40년 전부터 LEVIS, CALVIN KLEIN 브랜드 바지, REEBOK, NIKE 신발, BOXER 양말 등 무단 상표도용 제품과 위조상표 제품 판매가 성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USTR 보고서에 의하면 과테말라는 2022년 올해의 특별 301 보고서를 위해 100개 이상의 무역 파트너 중 우선 감시대상으로 분류 되었다.

다수의 지식재산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지재권 보호는 1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식소유권의 등록은 경제부 소속인 지식재산청에서 실시하고 있다.

정부 법령 148-2014에 따라 2014년 5월 17일부터 지적 재산권 등록비용이 인상되었다. 지적 재산권 등록 절차에 따라 90~8,000케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책정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9. 청산 및 철수

청산 및 철수

상법 218조의 외국 기업의 청산 조항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철수하거나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에 (1)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회계장부 및 법적 대표자가 철수 일자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는 약속서, (2) 과테말라 내에서 체결한 채무, 사업관계가 완료되거나 보증됐다는 증빙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과테말라의 기업 청산 및 철수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1단계) 등기소 내 BANRURAL 지점에서 신청양식(Formulario de Inscripcion de Asambleas) 구입 또는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2단계) BANRURAL 지점 또는 온라인으로 인지세(Q.150) 납부
- (3단계) 등기소 창구에 작성양식 및 청산에 대한 주주총회 동의서(원본, 사본 포함) 등 제출
- (4단계) 등기소 내 BANRURAL 지점에서 해산신청서(Inscripcion de la Escritura PUblica de Disolucion) Q.300, 고시문(Edicto) 발행수수료 Q.30, 고시문 당 Q. 200
- (5단계) 등기소 창구에 관련 서류 제출
- (6단계) 청산인 임명 양식(Formulario de Auxiliares de Comercio) 구입 및 작성
- (7단계) 관련 서류 제출
- (8단계) 청산확인서 제출 등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특성

소비인구

유엔 통계(UN WORLDMETER)에 따르면 과테말라 총인구는 약 1,830만 명이며, 2020년에는 출생자 수가 395,457명으로 사망자 수보다 높은 자연 인구 증가 국가이다. 이 중 59%가 0-29세이며, 30-64세는 34.3%, 65세 이상은 6.3%다. 1인당 국민소득은 5,024달러, 구매력 환산 기준 8,996달러로 중남미에서는 저소득 국으로 분류되나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중미지역에서는 가장 큰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인구증가율은 1.56%이며 가임기 여성의 출산율은 2.87명 수준으로 여전히 높아 소비에 개방적인 젊은 소비계층의 유입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심화하면서 오늘날에는 54%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 중이다. 과테말라시 및 인근 수도권은 약 3백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최대 소비 밀집 지역이자 경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내륙지역은 아직 수도권만큼 인프라 정비에 있어 있지 않고, 각종 원부자재, 식자재 등을 구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통망 측면에서는 진출이 저조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과테말라시 및 인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상권으로는 셀라, 치말테낭고, 코반, 사카파, 후티아파, 푸에르토 바리오스, 플로레스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자료원 : 유엔통계(UN WORLDMETER)>

소비 성향

1) 소비자 성향 및 관습

총인구의 59.3%가 빈곤층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극빈층은 23%이다. 인구의 약 40%를 차지하는 원주민 그룹에서의 빈곤은 더 심각한데 빈곤층 79%, 극빈층은 40%가량을 차지한다. 과테말라는 중산층 형성이 미약한 편으로 상·하층으로 양극화된 소득분포구조에 따른 마케팅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수도권 및 극히 제한된 도시권에 유효 구매수요가 밀집해 있다.

2) 소비자 구매 선호도

과테말라 소비자들은 가격에 매우 민감하지만 동시에 좋은 품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 대한 동경, 미국 근무 가족이 많은 인구 구조 특성상 전통적으로 미국산 또는 미국에서 잘 팔리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게다가 미국 아마존 등을 통한 직구 시장도 매우 활발하며 미국에 배송대행지를 두고 물건을 구매하는 Door-to-door 서비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산 제품도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일단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미 북부 3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은 시장의 구매력을 언급할 때 미국 이민자의 본국 가족송금을 빼놓을 수 없다. 국제이주기구(IOM) 추정 통계에 따르면 과테말라 전체 인구의 38%가 미국에 있는 친척, 가족으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으며, 2020년 기준 GDP의 13%에 달하는 113억 달러의 송금액이 유입되었다. 본국 송금이 많아지는 소비재 판매 성수기는 어머니날을 전후한 5월과 크리스마스를 앞둔 11~12월이다. 2021년 10월 미국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중미는 10월경 재개) 송금액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과테말라의 경우, 2020년 국내 생산은 코로나19로 감소했지만 송금액은 전년도 송금액 105억 달러보다 증가하였다.

3) 지리적 특성

과테말라는 중미의 테스트 마켓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이 인근 국가에 판매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에서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인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으로 쉽게 확대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과테말라를 기점으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시장을 점진적으로 공략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엘살바도르 및 과테말라 유통자본의 중미 다국적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각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더라도 구매 의사결정을 본사로 일원화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미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소비 성향과는 무관하나, 2017년 7월 과테말라-온두라스 관세동맹이 정식 발효되었고 엘살바도르도 2018년 6월 관세 동맹 편입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하는 등 중미 북부 3개국 간 실질적인 시장 통합 움직임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관세 동맹 덕분에 품목에 따라서는 첫 도착 국에서 관세 등을 납세한 후 FyDUCA를 통해 온라인 통관신고를 마치면 이후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성향이나 시장 판도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상품 이미지

1) 한국상품 인지도

삼성, LG 전자 및 현대 기아차 등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높지만, 가격 경쟁력이 낮은 편이다. 최근 들어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산 제품과 비슷한 품질을 갖춘 저가의 브랜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가격이 높은 한국 브랜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특히 휴대폰은 HUAWEI가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해를 달리할수록 JAC, MAHINDRA, BYD, CHANGHE, ZX, YUTONG, GREAT WALL 등과 같은 중국산 브랜드가 길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등 중국, 인도계 저가 상품의 공세가 한국산 제품에 위협이 되고 있다.

소비재의 경우 2018년 과테말라 시장에 진출한 무무소(MUMUSO)의 성공이 과테말라 소비자 성향을 가능할 주요 잣대라 하겠다. 2018년 한해에만 4개 매장을 오픈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한국산이라는 이미지 마케팅과 더불어 저렴한 가격으로 공략하면서 대중의 인기몰이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무역관은 대사관과 공동으로 페이스북 공지 등을 통해 무무소 제품은 한국과 무관함을 공지하며 현지 언론 및 소비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으나, 실제 무무소 매장을 방문해보면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등 소비자들은 이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2021년 무무소는 과테말라 전국에 8개 매장을, 미니소는 13개 매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편 KOTRA 과테말라 무역관은 2018년 중미 지역 최초로 화장품 전문 유통망 팝업스토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한국 브랜드 이미지 확산과 판매량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한국 제품 수입 벤더들과 협업하여, 인플루언서 홍보, 팝업스토어 등의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바이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 한류 동향

한류 동향은 연계 문화상품 또는 파생 소비재 진출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 상품 시장 전망을 가능할 시금석이라 하겠다. 과테말라에서 한국드라마 방영은 2006년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대장금 등 여러 편의 드라마가 방영돼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겨울연가의 경우, 반응이 좋아 재방영되기까지 했다. 2018년 들어서는 현지 케이블 채널을 통해 태양의 후예가 방영되기도 하였으며 2019년 8월 말부터는 구르미 그린 달빛이 상영되었다. 한국 영상물이 인기를 끄는 주된 이유로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국적인 한국의 풍경, 한국인 배우의 매력적인 모습, 중남미 콘텐츠가 지닌 천편일률적 주제에서의 탈피 등을 꼽고 있다. 2020년 상반기에는 애니메이션인 뽀로로가 하반기에는 타요가 방영되었다. 한편, Netflix 구독이 늘어나면서 Netflix를 통한 한국 드라마, 영화 콘텐츠 소비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한류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현지의 또 다른 한류 붐으로는 K-Pop을 꼽을 수 있다. 과테말라의 K-Pop 동호회 수는 40여 개이며 상기 동호회를 통합하는 별도의 동호회가 있다. 동호회 회원들의 연령대는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구성돼 있고,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며 비정기적으로 K-Pop

경연대회 및 친목 도모 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이 K-Pop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기존 미국식 Pop 음악을 벗어난 새로운 음악에 대한 열망과 동시에 한국 문화를 위시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의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현지 라디오방송 등을 통해 방탄소년단 (BTS) 음악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으며, 자체 팬클럽 모임도 활성화되는 등 한류 문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과테말라의 많은 업체는 금융비용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L/C 개설을 회피하며 T/T 거래를 선호한다. 선금 30%, 선적 후 70% 등의 방식이다. T/T 송금 후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에 Commercial Invoice, B/L, Packing list 등의 서류를 보내야 한다. L/C 거래 시 과테말라 은행의 대외신용도가 낮으므로 미국 소재 외국은행을 통한 CONFIRMED L/C 개설이 안전하다.

중미지역에서 가장 경제규모가 큰 과테말라의 많은 수입업체는 인근 중미국에도 판매장이나 거래선을 두고 있으며, 과테말라에서 시장성이 있는 제품은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과테말라를 기점으로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 중미시장을 점진적으로 공략한다는 자세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장 규모에 있어서도 주변 중미국들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중미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반드시 과테말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한편 상표등록(Registro Mercantil)은 수입업체 또는 에이전트에게 맡기지 말고 현지 변호사 협조하에 한국업체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등록 시에는 등록자 개인과 해당 브랜드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상표등록은 비교적 쉬운 편이다. 실제로 현지 식료품 유통업체가 삼양 브랜드를 임의로 등록하여 오래전부터 컵라면을 생산, 유통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삼양라면 제품의 대형유통망 입점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2) 기업 문화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대개 첫 거래는 소량 오더가 일반적이며, 특히 시장조사와 소비자 기호 파악을 위한 시험구매가 일반적이므로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기대하고 상담에 임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음에는 바이어가 원하는 소량 오더를 수용하되, 향후 설득을 통해 거래량을 키워가겠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과테말라 수입상들은 상담 약속이나 거래 추진을 원치 않을 경우 직접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약속시각을 변경하거나 혹은 “나중에 보자”, “담당자가 없다”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재차 연락하는 등 헛수고를 하게 하므로 성사 여부를 미리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와는 달리 이메일 또는 전화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상대적으로 희박하다. 따라서 한국 업체는 급하게 확인할 일이 있더라도 반응이 없어 애간장을 태우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러한 일을 겪고 나면 상대방이 과연 비즈니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하다. 최근에는 중미 기업인들도 WhatsApp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친분이 쌓이고 휴대폰 번호를 받았다면 WhatsApp 등의 메신저를 통해 간단한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도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동일 건으로 너무 자주 연락을 한다면 바이어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아예 연락에 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미지역 기업들은 가족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오너 또는 의사 결정권자 집단과 실무자 집단 간 의사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것이 일반적이다. 또 대부분의 의사 결정이 오너에 집중되어 있고 휴가 또는 출장으로 자리에 없는 시간이 많아 즉시 응답을 하지 못하거나 실무자가 이를 놓쳐 경영진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회신이 늦거나 없다고 실망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은 금물이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사소한 소통상의 실수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경우 무역관과 사전 협의 후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 무역관 담당자를 참조로 하면, 우리 직원이 별도로 접촉하여 리마인드 하거나 수신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메일 수신이 누락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다.

3) 인터넷 해킹을 통한 무역 사기 유의

중남미에서도 피싱, 해킹 등을 통한 무역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장 주된 유형으로는 장기간 한국-현지 기업의 이메일을 모니터링하다가 결제가 임박했을 때 세무조사, 은행 시스템 문제 등을 빌미로 갑작스레 입금 계좌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19를 이유로 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였다.) 만약 해외 바이어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국내 기업과 이메일이 아닌 유선전화, 팩스, 메신저 등으로 추가로 계좌 변경 내역을 확인하며 제 3자가 개입된 것을 알게 된다면 다행이지만 별 의심 없이 대금을 이체하게 되면 제 3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순간 바로 출금되어 해당 금액을 되찾기는 어려워진다. 특히 오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한 경우에는 국내업체 입장에서 그동안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대금 입금이 늦어지는 것에 큰 의심을 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은행에 지급중지 신청을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국제금융사기의 경우, 피해금액이 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받을 정도의 큰 규모가 아니고, 수입자와 수출자 간 귀책사유를 판명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에 원만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대금 입금 전후로는 이메일이 아닌 다른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해 더블체크를 하거나, KOTRA를 통해 계좌 정보에 대해 다시 한번 유선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회사 자체 메일이 아닌 상용 메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로그인 시 이중 보안 장치를 사용하는 등 보안 유지를 위한 각종 수단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인종에 대한 언급은 피하라

과테말라는 전체 인구의 40%가 마야 후손 원주민(인디오)이며, 혼혈(라디노), 백인 등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토착 원주민은 수백 년간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이들의 대부분이 빈곤층을 차지하고 있어 그 아픔의 흔적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인종 간 갈등이 표출되지 않고, 인종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시련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테말라인에게 ‘당신이 (순수) 백인이냐, 혼혈이냐, 인디오냐, 마야인이냐’ 등의 질문을 하는 것은 큰 실례를 저지르는 것이다. 특히 원주민을 의미하는 인디오(Indio) 라는 단어 자체를 아주 경멸적이고 차별적인 것으로 간주할 정도로 민감하다. 한때는 인디오 단어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 운동까지 있었다. 또한, 인종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등의 질문이나 언급도 피하는 것이 좋다.

2) 중미의 만형으로서의 자부심을 존중하라

과테말라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직후에는 중미연방의 수도로서 기능했으며 역사적으로 중미지역에서 정치, 경제적 위상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특히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인접 국가와는 심적으로 매우 가깝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웃 국가 중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파나마에 대해서는 다소 반감을 품고 있는데, 그 이유는 멕시코는 대국이라고 콧대가 너무 높고 코스타리카, 파나마는 좀 잘 산다고 상대방을 얕잡아 본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테말라를 멕시코나 코스타리카와 비교해가며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멕시코나 코스타리카가 축구를 잘하는데 과테말라는 왜 월드컵에 안 나오느냐 등의 대화는 가히 치명적이다. 반면 과테말라를 정복한 스페인에 대해서는 단지 ‘과거의 일’로 여길 만큼 반감이나 적개심은 없다. 참고로 파나마는 역사적으로도 콜롬비아의 한 부분이었던 관계로 중미국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

3)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아미고문화'

또한, 스페인, 미국 등 강대국 침략에 시달린 역사적 배경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 및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어, 먼저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상호 신뢰를 얻는 것이 비즈니스에 매우 중요하다.

4) 손짓은 조심해서 사용하라

엄지와 검지를 모아 동그라미를 그리면 우리처럼 OK 표시이고, 엄지를 위로 치켜들면 'Good'이란 뜻이며 기타 다른 동작도 한국인의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주의해야 할 손동작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을 향해 손을 뻗고 전체 손가락을 벌리는 것이다. 이 동작은 상대방에 대한 욕으로 간주되고 싸움을 걸 때나 사용되는 것이니 주의해야 한다.

5) 여성을 대하는 에티켓

여성에 대한 예의는 서양과 대동소이하다. 차를 타거나 내릴 때는 문을 여닫아주는 것이 보통이고, 출입할 때는 여성이 먼저 통과하도록 자리를 내준다.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이 와인을 서빙할 때는 나이나 서열순이 아니고 여성이 먼저다. 비즈니스 상담에서는 상대방이 여성일 경우에는 절대로 나이를 물어서는 안 된다. 설령 젊은 여성에게도 나이를 묻는 것은 결례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대 여성이 기혼인지 미혼인지 모르거나 애매할 때는 기혼자를 뜻하는 씨노라(Sra. 영어의 Mrs) 보다는 미혼자를 의미하는 씨노리따(Srta. 영어의 Miss)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6) 초면에 명함을 주지 않아도 놀라지 마라

과테말라에서는 치안 불안으로 인해 개인정보나 연락처, 소재지 등이 포함된 명함을 초면에 교류하지 않는 것이 일상적이며, 첫 대면에는 수기로 이메일주소나 Whatsapp으로 연락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실제 명함을 도용해 현지 범죄자거나 수감자들이 유선으로 협박을하여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명함을 주고 받을 때는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를 쌓은 후에 하는 경우가 일상적이다. 따라서, 첫 대면시 상대방이 명함을 주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기분 나빠하거나 신뢰하지 않을 필요는 없고, 한국인 출장자라면 먼저 본인 명함만 건네는 것도 신뢰를 쌓아가는 방법이다. 현지 기업의 경우 명함이 있더라도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명시안하는 경우가 많아, Whatsapp등을 통한 연락을 희망할 경우 직접 문의하여 번호 교류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주요상거래 플랫폼

<p>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p>	<p>1) KEMIK (www.kemik.gt) ○ 개요: 과테말라 전역에서 택배로 구매할 수 있는 16,000개 이상의 품목을 보유한 온라인사이트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4년, 141만 달러, 50명 ○ 주요 판매 품목: 자전거, 패션 액세서리 및 서적 등 ○ 특징: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 매일 50~100개의 새로운 제품이 등록되는 방대한 카탈로그, 쇼핑물에서 쇼핑할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 시간 낭비 등을 절약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2) Pacifiko.com(www.pacifiko.com) ○ 개요: 2019년 런칭된 글로벌 확장 전략을 선도하는 소비자가 집에서 편안하고 빠른 배송으로 필요한 모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9년, 26만 달러, 50명 ○ 주요 판매 품목: 스포츠, 주거용품, 건강제품 등 ○ 특징: 전국 배송, 구매 보증 및 편리한 결제 방법 제공3) Guatemala Digital(www.guatemaladigital.com) ○ 개요: ECommerce Institute에서 보증하는 온라인 쇼핑물로, 제품을 수입하여 최저가로 유통하며, 다양한 카테고리의 광범위한 제품 카탈로그와 효율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07년, 141만 달러, 미공개 ○ 주요 판매 품목: 컴퓨터 액세서리, 다양한 종류의 전자기기 ○ 특징: 모조품, 중고제품이 아닌 신제품 판매하며, 제품 보증 판매4) Calidad.com(www.quecalidad.com) ○ 개요: 과테말라 자체 온라인 종합 판매 사이트로 전국 배송 서비스 제공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14년, 미공개 ○ 주요 판매 품목: 기술, 게임, 가전제품 등 ○ 특징: 지역 및 국제 공급 업체의 광범위한 네트워크와 거래를 통해 더 쉽고 다양한 지불 방식을 통한 서비스 제공5) Guateonline.com(Guateonline.com) ○ 개요: 과테말라 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종합 판매 사이트로 판매자와 소비자 직접 거래 가능 ○ 설립연도 및 매출규모, 고용인원: 2021년, 미공개 ○ 주요 판매 품목: 기술, 게임, 가전제품, 소비재 등 ○ 특징: 배송업체 Cargo Express와 결제 시스템 담당 은행 BAC와 함께 전자상거래 사이트 오픈</p>
---------------------	--

4.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공격적 투자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의류 전문기업, A사

A사는 편직, 봉제 생산 라인을 두루 갖춘 수출 임가공 전문기업으로 현지에 자생한 한국계 기업이다. 타 봉제기업들이 경영난, 이전 등의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공격적인 영업전략으로 사업을 지속 확장해가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T사(봉제), N사(편직), S사(무역) 등 3개사를 통합하면서, 오더부터 제조, 공급까지 일괄 수주, 진행이 가능한 종합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현재는 라운드, 플로티셔츠 등을 주로 생산하며, 미국 브랜드를 주력으로 다수의 유명브랜드에 의류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2) 국내 중소기업, 금속기와 과테말라 최초 수출

P사와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간 최초 접촉 이후, 무역관이 뉴질랜드산 D 브랜드 수입유통업체와의 상담 등에 기반한 현지 시장성 검토를 거친 후 지사화 사업 참가를 권유해 가입했다. 페루프사는 과테말라 시장진출에 대한 강한 욕구로 파격적인 할인 가격, 운임 부담 등에 의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D브랜드 등 여타 외국 경쟁사가 차지하고 있는 과테말라 시장을 공략하는 자세를 보였다.

무역관이 15개 이상의 주요 바이어를 접촉한 결과, P사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임에도 C사, A사, C사 등 3개사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여전히 가격이 높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무역관은 동시에 매년 개최되는 과테말라 건축박람회(Construfer)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참가를 권유했다. P사는 같은 시기에 개최되는 파나마 종합박람회 (ExpoComer)에 과거 수년 전부터 참가해온 관계로 Construfer 참가에 관한 결정을 주저했다. 이에 무역관이 Construfer가 건축 전문박람회임을 강조하며, 박람회 주최 측과 협상을 통해 1개 부스 비용으로 2개 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성을 보임에 따라 페루프사에서 두 전시회에 모두 참가기로 했다. 전시회 기간 중 무역관이 사전 주선한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C사가 P사의 에이전트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P사는 에이전트 조건으로 20피트 컨테이너 1대 분량(8천 장)의 선수입을 제시했으며, C사는 최초 오더로 4천 장에 대한 견적을 요청했다. 금속기와 제품에 대한 HS Code 해석에 대한 문제를 무역관의 협조하에 3자 간 논의를 통해 해소한 뒤 최종 견적을 확정함으로써 P사의 대 과테말라 최초 수출이 결실을 보았다.

3) 국산 안마 의자, B사

B사는 한인 교포기업이 직접 수입 및 유통을 하는 브랜드로 최근 인지도를 크게 넓혀가고 있다. 과테말라 주요 쇼핑몰에 대거 입점,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 마케팅하는 한편, 과테말라뿐 아니라 중미 전역을 대상으로 한 배달서비스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판매망을 키워가고 있다.

4) K-Beauty 붐

최근 과테말라에서는 여성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스킨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해외에서의 뷰티 트렌드를 빠르게 접수하게 되었고 한국의 BB크림, 10-steps skincare routine 등이 시장에 알려졌다. 이에 KOTRA에서는 2018년 과테말라 및 중미에 화장품 유통하고 있는 B사와의 협업을 통해 M브랜드, I브랜드, B브랜드 등 한국 화장품 7개 브랜드 102개 제품을 과테말라 시장에 소개한 사례가 있다. 이 중 A브랜드의 올인원 선블록, B브랜드의 그린티 워터밤 수분 크림 등은 B사에서 선정한 K-Beauty 히트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20년 KOTRA 과테말라 무역관은 S사 등 주요 벤더 및 유통망 14개사와 소비재 상시 입점 지원 및 인플루언서 마케팅 사업을 통해 국내 화장품 5개 브랜드를 현지 과테말라 및 엘살바도르 유통망에 신규 입점 지원하였다.

5) 한국 코로나 진단키트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국내기업 A사는 기존에 구축한 대리점을 통해 선제적으로 보건등록을 취득, 진단키트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다. A사의 대리점은 주재국에서도 정부 입찰 경험이 많은 기업으로 빠른 보건등록 취득이 가능했다. 과테말라의 경우 보건등록을 현지 유통판매기업이 취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테말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쟁사들은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고, 보건부는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인력이 집중되어 역설적으로 보건등록 업무진행이 늦어지며 타 브랜드는 정부 입찰 참여 및 제품 판매 시점이 늦어지게 되었다. 의약품 등은 민간시장보다 정부입찰시장 규모가 크고, 과거 정부입찰실적에 따라 정부에 판매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판매실적이 있는 대리점 발굴이 대단히 중요하다 할 수 있다.

5.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대한민국 국민이 과테말라에 입국 및 체류할 수 있는 서류와 절차에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그 외의 추가 서류는 각 비자 설명과 함께 기재한다.

1) 비자발급 신청 기본 서류

여권 원본 및 사본, 증명사진, 신청서를 준비하고 대사관에 여권 유효기간 증명서와 범죄경력회보서를 신청한다. 범죄경력회보서(조회 목적: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기한: 5년)의 경우 한국 경찰서에서 영문으로 발급받으면, 주 과테말라 대한한국 대사관에서 스페인어로 된 범죄경력회보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출생증명서,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의 여권 사본 및 서명이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연장 비용은 US\$ 25.00이며 (이민청 홈페이지 참고) 카드는 받지 않으므로 현금 준비는 필수이다. 비자발급 또한 연장 신청 전에 이민청 홈페이지(igm.gob.gt)에서 관광비자 신청서를 출력하고 작성해야 한다. 이민청 방문 시 신청서와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비자 신청 후 발급까지의 기간은 대략 3주 걸린다.

2) 비자 종류

① 관광비자: 대한민국과 과테말라 양국 간 체결된 무비자 협정에 따라 입국 후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으며, 90일이 만료되기 전에 기본 서류와 함께 이민청 (Direccion General de Migracion)을 방문하면 1회에 한해 9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② 단기 거주 비자: 신청기간 1~5년일 경우. 비용은 US\$ 200.00/1년, US\$ 300.00/2년, US\$ 500.00/3~5년이다. 추가 서류는 출입국 증명서(이민청 5층에서 발급 가능),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신원보증 증명서가 필요하다.

- 학생 비자: US\$ 100.00, 교육기관 초청장, 입학허가서, 입학 예정 확인서 필요.

- 종교 비자: US\$ 50.00

- 투자 비자: 신청 시 필요서류는 이민청 홈페이지 서류 참고

③ 영주권: 단기 거주 비자 소지자에 한해서 발급 가능하며 기본 영주권은 US\$ 700.00이다.

추가 서류는 출입국 증명서(이민청 5층에서 발급 가능),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는 신원보증 증명서가 필요하다. 단 자녀가 과테말라 출생인 경우는 자녀 출생증명서로 영주권 발급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3) 비자 발급 시 참고 및 유의사항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관 및 주 한국 과테말라대사관에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비자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민청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장기 주재를 생각할 경우에는 통상 자문 변호사를 고용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① 이민청:

- <http://www.igm.gob.gt> (홈페이지는 현지 인터넷 사정, 기관 유지보수 등으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주소: 6ta. Avenida 3-11 Zona 4, Guatemala, Guatemala.

- 전화번호: (+502) 2411-2411
- 근무시간: 8:00~16:00(월~금)

②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 주소: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빌딩 614호
- 전화번호: 02-771-7582
- 근무시간: 9:30~12:30(월~금)

③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gt-ko/index.do>
- 주소: Euro Plaza Business Center, 5 Avenida 5-55, Guatemala Nivel 7.
- 전화번호: (+502) 2382-4051
-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02-3368-9333
- 근무시간: 8:30~17:00(월~금)

* 외국인인 매해 외국인세 년 40불 (Actualizado de datos)과 이민 신분 증명세(constancia de estatus migratio) 30불을 Zona 4 이민청 2층에 제출 해야 한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1) 외화 반·출입 한도

과테말라 입출국 시 신고되지 않은 고액 현금 소지는 자금세탁 범죄로 간주된다. 더군다나 주재국에서 자금세탁 방지법 관련 혐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무거운 범죄이므로, 소지한 현금의 가액(현지화, 미화, 원화를 모두 포함)이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 1만 달러 초과 휴대 시 세관 신고는 물론 은행거래기록 등 해당 자금의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실제로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고액현금을 소지한 채 입국 또는 출국 중에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일단 적발되는 경우 현장에서 전부 몰수되고 형사 고발 조치가 된다. 향후 무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예외 없이 현장 체포는 물론 향후 수사와 공판 진행으로 인한 출국 금지, 보석금 납부, 변호사 선임 등 불편 사항이 많이 수반된다. 특히 한국인 사업가, 교포들이 이를 쉽게 생각하고 고액의 유가 증권 류를 소지한 채 출입국에 나서다가 세관에서 체포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재국 자금세탁방지법(Decreto No. 67-2001) 제25조에 따르면 미화 1만 달러 이상 휴대 사실을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후 적발되는 경우 해당 현금과 서류 등을 압수 후 범죄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밖에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별도로 형법상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

2) 휴대품 면세 한도

CAUCA 규정(113조, 578~583조)에 의거, 과테말라 입국 시 허용되는 휴대품 면세통관 물품은 아래와 같다.

- 주류 : 성인 1인당 5리터까지 허용(종류 무관)
- 담배류 : 성인 1인당 500g까지 허용(종류 무관)

- 의약품 : 여행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휴대 약품, 의료용(일회용) 용품
- 식품 : 사탕류 2kg 이내 및 여행자의 필요에 따른 소지품
- 기타 : 일반 면세기준 수화물 외 500달러 상당의 상품류

다만 여행자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주재국법에 따른 제재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세관심사가 까다로운 편은 아니나 짐이 많거나 박스포장의 경우 전수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이를 대비해 샘플은 반드시 인보이스와 함께 해당 상품에 어떠한 형태로든 ‘Sample(서어: Muestra)’ 임을 표기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기기를 통해 검사 대상자를 무작위 선별하는 방식으로 세관 시스템이 변경되었는데, 입국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녹색등이 점등되면 면제, 적색 점등 시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에도 엑스레이 및 육안 검사 시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문제없이 통과된다. 출장자가 샘플을 직접 수화물로 가져올 때 세관신고서, 인보이스 상의 수량이 상이할 경우 예외 없이 과세하는데, 특히 제품에 샘플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면 이를 매우 엄격히 적용하므로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일단 적발이 되면 현장에서는 절대 해결이 되지 않고 압수 또는 바로 과세에 들어간다. 따라서 걸리더라도 현장에서 해결해볼 요량으로 면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물품을 가져올 시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6.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

전화번호	+502) 2382-4051~5
주소	5 Ave. 5-55, Zona 14, Edificio Europlaza, Torre 3, Nivel 7, Guatemala, C.A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gt-ko/index.do
비고	긴급전화 : +502) 3368-9333이메일: embcor.gt@mofa.go.kr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과테말라사무소

전화번호	+502) 2382-4061
주소	5 Ave. 5-55, Zona 14, Edificio Europlaza, Torre 3, Nivel 7, Guatemala, C.A
홈페이지	http://www.koica.go.kr/sites/gtm_en/index.do
비고	대사관과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위치

○ 재과테말라 한인회

전화번호	+502) 2445-6461
주소	9 Ave. 14-36, Colonia Alvarado, Zona 3 de Mixco
홈페이지	
비고	홈페이지는 오랜기간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한인회에서는 과테말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인 '과테말라 사회 알림방'을 운영하고 있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및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대사관>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과테말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PRONACOM / Programa Nacional de Competitividad de Guatemala)

전화번호	+502) 2421-2464
주소	13 Calle 3-40, Zona 10, Edificio Atlantis, Oficina 302
홈페이지	http://www.pronacom.gt
비고	이메일 : comunicacion@pronacom.org 무역관과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해 있다.

○ 과테말라 상공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Guatemala)

전화번호	+502) 2417-2700
주소	10A Calle 3-80, Zona 1, Guatemala
홈페이지	http://ccg.com.gt/web-ccg
비고	이메일: info@ccg.gt

○ 과테말라 제조업협회(Camara de Industria de Guatemala)

전화번호	+502) 2380-9000
주소	Ruta 6, 9-21, Zona 4, Nivel 12, Guatemala
홈페이지	http://cig.industriaguatemala.com
비고	이메일: atencional socio@industriaguatemala.com

○ 과테말라 건설업협회(Camara Guatemalteca de la Construccion)

전화번호	+502) 2387-2727
주소	Km. 8 Muxbal, Res el Prado L. 215, Zona 4, Santa Catarina Pinula,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construguate.com
비고	이메일: info@construguate.com

○ 과테말라 수출업협회(AGEXPORT/Asociacion Guatemalteca de Exportadores)

전화번호	+502) 2422-3400
주소	15 Avenida 14-72, Zona 13, Guatemala
홈페이지	http://export.com.gt
비고	이메일: servicioalcliente@agexport.org.gt

○ 과테말라 전국경제인연합(CACIF/Comite Coordinador de Asociaciones)

전화번호	+502) 2201-0000
주소	Ruta 6, 9-21, Zona 4, Edificio Camara de Industria de Guatemala, Nivel 9, Guatemala
홈페이지	https://www.cacif.org.gt/
비고	이메일: analisisunice@cacif.org.gt

○ PRENSA LIBRE

전화번호	+502) 2412-5000
주소	13 Calle 9-31, Zona 1,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prensalibre.com
비고	과테말라 제1의 일간지

○ EL PERIODICO

전화번호	+502) 2427-2300
주소	15 Avenida 24-51, Zona 13, Guatemala
홈페이지	https://elperiodico.com.gt/
비고	과테말라 주요 일간지. 해외 전용 URL로 한국에서 실행 안될 수 있음

○ 온라인행정안내시스템(ASISEHACE)

전화번호	없음
주소	전자정부시스템(별도 주소 없음)
홈페이지	http://asisehace.gt
비고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정부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일목요연하게 안내하는 사이트

○ 온라인등기소(REGISTRO MERCANTIL ELECTRONICO)

전화번호	없음
주소	전자정부시스템(별도 주소 없음)
홈페이지	http://minegocio.gt
비고	전자정부 시스템으로 기업/법인 등록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윈스톱 창구, 해외 전용 URL로 한국에서 실행 안될 수 있음

○ 과테말라 섬유산업협회(VESTEX/Asociacion de la Industria del Vestuario y Textiles)

전화번호	+502) 2410-8323
주소	15 Avenida 14-72, Zona 13, Edificio Agexport, 2 nivel, Guatemala
홈페이지	http://vestex.com.gt
비고	이메일: vestex@apparel.com.gt 한국기업 담당: jkim@apparel.com.gt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7.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7.95 과테말라케찰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800
2	식품	비빔밥	1인분	11.000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1.000
4	식품	신라면	1봉지	2.000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작은컵)	1잔	2.600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2l	0.650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600ml	0.940
8	의료	항생제(METRONIDAZOL계열 500mg)	42정	18.00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0.650
10	교통	지하철요금(없음)	기본요금	3.870
11	교통	택시요금(TAXI AMARILLO, 콜택시)	1km	0.630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9.000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Galon	4.920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1.400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5.900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3.300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6.500
18	임금	최저임금/월급	법정최저	362.000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10636.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1.750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조사〉

8.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화폐단위는 과테말라 케찰(Quetzal)로 약칭은 Q. 또는 GTQ.이며, 1케찰 동전을 제외하고 케찰 단위는 전량 지폐로 유통된다. 동전은 센타보(Centavo)라는 단위로 불리며, 1 케찰이 100센타보와 동일한 가치로 교환된다. 화폐 단위는 1, 5, 10, 20, 50, 100, 200 등 7종이 유통되며, 최고액권인 200케찰은 미화 30달러 수준의 고액권이어서 유통량이 많지 않고 위폐가 간혹 있어 상점 등에서도 신분증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동전은 1 케찰과 1, 5, 10, 25센타보 등 5종이 유통되고 있다.

환전방법

공항보다는 체류 호텔 또는 시내 은행에서 환전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 환전 시에는 신분증(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일부 은행에서는 환전수수료를 받는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외환거래규정으로 인해 고액 환전 시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하루에 500달러 이상의 환전을 거부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현지 정부 방침상 돈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에서의 1인당 달러 현금 환전 또는 입금이 월 500달러 한도로 정해져 있다). 보다 나은 환율로 환전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암달러상을 찾는 출장자도 있으나 찾기 쉽지 않고 환전만 전문으로 하는 환전상도 매우 드문 것이 과테말라의 특징이다. 적용 환율은 은행, 호텔, 공항 순으로 좋은 편이다.

신용카드 이용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어 이용에 제약은 없으며, 대부분 상점, 식당 등에서 VISA, MASTER, AMEX카드로 결제 가능하다. 과거 카드 복제 사고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휴대용 단말기(POS) 이용이 제도화되어 있어, 현장에서 바로 결제하므로 도용사고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휴대용 단말기를 갖추지 않은 영세 상점 등에서는 여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일시적인 통신장애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소액의 현금은 항상 지참하는 게 좋다.

나. 교통

교통상황

대중교통이 미흡한 상황에서 도심 집중 현상이 심화하다 보니 과테말라시티의 교통 체증은 과포화 상태를 넘긴 지 오래다. 치안이 좋지 않은 점이 시민의 자가용 소유 욕구를 자극하는 데다, 중고차 수입 제한이 없어(중미 유일) 미국산 중고차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이 차량 등록 대수 증가의 기폭제가 되었다. 그 결과, 과테말라시티의 교통 체증은 상당한 수준이다.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따라서 중요한 약속은 시간 여유를 두고 미리 이동하거나 혼잡 시간대를 피해 일정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주요 간선도로들은 우회로가 없어, 사소한 교통사고나 장마철(4~11월) 일부 구간의 침수가 도시 전체 도로의 극심한 체증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종종 관찰된다.

버스

과테말라시티에는 TRANSMETRO(횡단노선), TRANURBANO(종단노선)와 같은 공영제 시내버스가 존재한다. 굴절형 버스를 비롯하여 신형버스가 투입되고 별도의 버스전용차로, 교통경찰이 상주하는 전용 경류장 등을 갖추고 있어 그나마 이용할 만하나, 간선버스의 성격이 짙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 실제로 통근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것은 개별 운송업자들이 노선 없이 운행하는 지선버스들인데 요금은 1.5과테말라 케찰로 매우 저렴하지만, 버스의 노후화가 심하고 무엇보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 주·야간 구분 없이 버스 내 총격, 살인 및 강절도 사건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특히 눈에 쉽게 띄는 차림의 외국인이라면 절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택시

치안 불안 및 간혹 발생하는 외국인 피습사건 등을 대비하여 외부 이동 시 택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택시(하얀 택시)는 가급적 지양하며 콜택시(노란 택시, 초록 택시)를 부르는 것이 안전하다. 택시요금은 공항에서 Zona 10 지역의 유명호텔까지는 10달러(75과테말라 케찰) 수준이다. 콜택시의 경우 미터기가 있으므로 가격을 신뢰할 수 있지만, 간혹 잔돈이 없다는 핑계로 돈을 더 받으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택시를 타기 전에 잔돈을 챙겨두는 편이 좋다. 2016년 12월 13일부터 우버가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빠른 속도로 사용자층을 넓혀가고 있다.

콜택시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Taxis Amarillo Express
 - 주소: 4ta Calle 0-15, Zona 13, Guatemala
 - 전화: +502) 2470-1515 또는 1766
 - 홈페이지: <http://www.amarilloexpress.com>
 - 특이사항: 전화예약 시 픽업 시간을 정할 수 있고 결제방식(카드 등)을 미리 말하면 가능한 차량을 배차(도착 시 차량 번호를 피드백해주는 등 안전장치 마련)
 - 요금: 4.8과테말라케찰/km, 정차 시 33초 단위로 0.8케찰 가산(최저요금은 현금 25케찰, 카드 35케찰 등)
- Taxis Verde Express(Taxis Amarillo Express와 같은 회사)
 - 주소: Av. Ferrocarril 17-13, Zona 12, Guatemala, C.A
 - 전화: +502) 2475-9595
- Uber
 - 코로나 이후 우버 사용량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이용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어플을 다운받아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다.
 - Uber 이용시 강도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여성 혼자서 타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다. 통신

핸드폰

무선통신은 Telgua(CLARO), Comcel(TIGO) 등 2개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지인들은 선불 요금제를 선호하나, 약정 요금제도 가능하다. 요금은 선불제 이용 시 100 케찰 당 100분 통화가 가능한데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3배 충전(통신사에 따라 4~6배 충전 프로그램도 존재) 프로모션 등이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사후 요금 지불제인 약정제는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한국보다는 다소 비싼 편이고, 가입 시 공과금 납부 내역 등 신용 상태를 까다롭게 살피는 편이다.

인터넷(와이파이)

과테말라 통신사에 여권사본, 각종 공과금 영수증 사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인을 세우면 외국인도 약정 계약이 가능하다. 통신회사 대부분이 인터넷 서비스도 제공하며, 보통 Telgua(CLARO), Comcel(TIGO) 의 두개 사업자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다. 보통은 케이블 TV+인터넷+유선전화 패키지로 상품을 판매하며, 인터넷 속도나 HD급 방송 포함 여부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지므로 본인의 필요에 맞는 옵션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6월 기준, 가정용 서비스의 경우 10MB, 15MB, 20MB, 40MB, 60MB, 100MB급의 인터넷 속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통상 5MB 정도면 IPTV나 HD급 유튜브 영상을 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다. 보통 인터넷(또는 케이블 TV)은 설치에 7일 정도 소요된다.

라. 관광명소

○ 국립문화박물관(구.대통령궁)(PALACIO NACIONAL DE LA CULTURA)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6a Calle, Zona 1, Guatemala, C.A.
운영시간	월~금요일: 8:00~16:00 토요일: 10:00~16:00
휴무일	공휴일 및 외교단 의전행사일(별도 고지 없음)
명소소개	1943년 완공되어 대통령 집무실과 각 부처 내각이 입주해있던 정부청사로, 당시 건축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어 방문해볼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다. 가이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입장료는 1인당 8달러이다.
비고	전화: +502) 2239-5000 홈페이지: mcd.gob.gt

○ 국립고고학박물관(MUSEO NACIONAL DE ARQUEOLOGIA Y ETNOLOGIA)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7ta Avenida 6a Calle, Zona 13, Guatemala, C.A.
운영시간	화~토요일: 9:00~16:00 일요일: 9:00~12:30 / 13:30~16:00
휴무일	월요일 및 공휴일
명소소개	마야문명의 유적 및 지역별 마야 소수부족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비고	전화: +502) 2475-4399

○ 포폴부박물관(MUSEO POPOL VUH)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Calle Manuel F. Ayau(6 Calle final), Zona 10, Guatemala, C.A.
운영시간	월~금요일 9:00~17:00 토요일 9:00~13:00
휴무일	일요일 및 공휴일
명소소개	과테말라 명문 FRANCISCO MARROQUIN 대학교 부설 박물관으로 규모는 작으나 마야문명 및 스페인 식민시대 각종 유물을 시대별로 잘 정리, 보존하고 있다.
비고	전화: +502) 2338-7896 홈페이지: popolvuh.ufm.edu

○ 라아우로라동물원(ZOOLOGICO LA AURORA)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5 Calle Interior Finca La aurora, Zona 13, Guatemala, C.A.
운영시간	화~일요일 9:00~16:00
휴무일	월요일
명소소개	과테말라시티 중심부에 위치한 동물원으로, 공항에서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고 동물들을 보며 안전하게 산책이 가능하여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명소이다.
비고	전화: +502) 2463-0463 홈페이지: www.aurorazoo.org.gt

○ 공예품시장(MERCADO DE ARTESANIAS LA AURORA)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6a Calle 10-95, Zona 13, Guatemala, C.A
운영시간	9:00~18: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비싸지 않은 가격에 공예품, 그림, 기념품 등을 살 수 있는 전용시장이다. 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으므로 출국 전 잠시 들러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마. 식당

- 현지식당

○ 라이라이(LAI LAI)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331-6507
주소	12 Calle 5-27, Zona 9
가격	11~20달러/1인
영업시간	10:00~23: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과테말라 최대 중식당으로 여러 곳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비고	모든 종류의 중국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비교적 한국인 입맛에 맞는 음식을 제공한다. 특히 ZONA 9 본점은 덤섬(오후 3시까지)도 가능하다.

○ 아시엔다 레알(HACIENDA REAL)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380-8383
주소	5a Avenida 14-67, Zona 10
가격	15~30달러/1인
영업시간	12:00~23:00 (일요일은 21:00까지)
휴무일	공휴일
소개	과테말라 자본의 고기요리 프랜차이즈 전문점으로 여러 곳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비고	비교적 고가의 메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과거 대비 음식맛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다.

○ 팔레르모(PALERMO)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336-7129
주소	4 Avenida y 12 Calle, Plaza Fontabella, Zona 10
가격	30~40달러/1인
영업시간	12:00~23:00 (일요일은 20:00까지)
휴무일	공휴일
소개	정통 아르헨티나식 스테이크(아사도) 전문 식당이다.
비고	스테이크 식당 중에서는 과테말라시티에서 최상급으로 평가받는 식당이며 한인들도 많이 찾는다.

○ 돈데미켈(DONDE MIKEL)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363-3308
주소	6 Ave. 13-32, Zona 10
가격	25~35달러/1인
영업시간	12:00~22:00
휴무일	토/일/공휴일
소개	정통 스페인식 음식점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다.
비고	신선한 재료와 올리브유로만 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 한인들이 많이 찾는 현지식당이다.

○ 몬타노 스테이크하우스(MONTANO STEAK HOUSE)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360-3135, 2360-312
주소	12 Calle 3-28, Zona 10
가격	25~35달러/1인
영업시간	12:00~23:00 (일요일은 18:00까지)
휴무일	공휴일
소개	와인과 곁들인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는 고급 식당이다.
비고	정치인, 기업인 등 고위 인사들이 많이 찾는 식당이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 한국식당

○ 한국관 (HANKUKKWAN)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439-5927
주소	2a Calle 33-14, Zona 7, Calz. Mateo Flores
가격	식사료 기준 10~13달러/1인
영업시간	12:00~21: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Zona 7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는 최대 규모 한식당이다.
비고	숯불구이 전문 음식점이다.

○ 명동(MYEONG DONG)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441-5266
주소	11 Calle 05-08, Zona 9
가격	식사료 기준 9~13달러/1인
영업시간	12:00~21:00
휴무일	설날, 부활절 휴무
소개	중심가인 Zona 10, LA AURORA 국제공항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한 한식당이다.

비고	한국식 중국음식, 각종 한식 외에도 숯불고기를 전문으로 제공한다.
----	--------------------------------------

○ 향이(HYANG-YI)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233-7210
주소	Calzada Mateo Flores 33-40, Zona 7
가격	식사류 기준 9~15달러/1인
영업시간	12:00~21:00 (월요일은 17:00부터 영업)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Zona 7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는 한식당이다(한국관 옆 위치).
비고	숯불구이를 비롯한 모든 한식요리를 제공한다.

○ 중국집(JUNGKUKJIB)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212-5639
주소	36Av. 1-59 Col. Toledo Zona 7
가격	식사류 기준 10~15달러/1인
영업시간	12:00~21: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Zona 7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는 한식당이다.
비고	한국식 중국음식 메뉴를 구비하고 있다.

○ 엘에이가든(LA GARDEN)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전화번호	+502) 2439-7176/2296-6154
주소	34 ave 1-65 Col. Toledo Zona 7
가격	식사류 기준 10~13달러/1인
영업시간	10:00~22:00
휴무일	둘째/넷째 월요일
소개	Zona 7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는 한식당이다.

비고	LA갈비 전문 한식당이며, 이 밖에도 복사시미, 오리 백숙 등도 제공한다. 노래방 기기도 갖추고 있어 회식 장소로 안성맞춤이다.
----	---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 웨스틴 까미노 레알(WESTIN CAMINO REAL)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Calle Camino Real 0-20, Zona 10, Guatemala, C.A
전화번호	+502) 2410-5000/2337-4406
홈페이지	http://hotelcaminoreal.com.gt
숙박료	싱글룸 152.5달러 / 더블룸 152.5달러(인터넷, 조식 포함, 공항 셔틀 미포함, 22% 세금 별도)
소개	국민 방문 시 주로 이용하는 과테말라시티 최고급 호텔이다(5성급). 특히 번화가인 Zona 10 중심가에 있고 공항에서도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비고	상기 요율은 2022년 무역관 특별 요율이며, 투숙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바르셀로 과테말라시티(BARCELO GUATEMALA CITY)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17 Avenida 15-45, Zona 9, Guatemala C.A
전화번호	+502) 2320-4000
홈페이지	http://www.barcelo.com
숙박료	싱글룸 91.5달러 / 더블룸 97.6달러(인터넷, 조식, 공항 셔틀 포함, 22% 세금 별도)
소개	5성급 호텔이며, LA AURORA 국제공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다. 호텔 내에 다양한 식당, 바가 있고, 옥외 수영장 및 피트니스센터 등을 완벽히 구비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비고	상기 요율은 2022년 무역관 특별 요율이며, 투숙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아울러 무료 공항 셔틀을 운영하고 있어 사전 예약 시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 클라리온 스위트(CLARION SUITE)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14 calle 3-08, Zona 10, Guatemala, C.A
전화번호	+502) 2421-3333
홈페이지	http://www.clarionguatemala.com

숙박료	싱글룸 136.64달러 / 더블룸 135.60달러(인터넷, 조식 포함, 공항 셔틀 별도, 22% 세금 별도)
소개	스위트형 호텔이며, 무역관에서 최단거리(한블럭)에 위치해 있다. 아파트 형으로 객실 내 취사도 가능하나, 수영장 등 부대시설은 다소 취약한 것이 흠이다.
비고	상기 요율은 2022년 무역관 특별 요율이며, 투숙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아울러 무료 공항 셔틀을 운영하고 있어 사전 예약 시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 하얏트 센트릭(Hyatt Centric)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12 Calle 2-25 Zona 10 Guatemala, C.A
전화번호	+502) 2217-6000
홈페이지	http://www.hyatt.com
숙박료	스탠더드 싱글 181.78달러(2인실의 경우 10달러 추가) (인터넷, 조식 포함, 공항셔틀 별도, 22% 세금 별도)
소개	과테말라에서 가장 최근 지어진 5성급 호텔로 무역관에서 한 블럭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신축 호텔인 관계로 상대적으로 깨끗한 시설을 자랑하며 과테말라 전통을 간직한 모던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 옥상 수영장, 루프탑 바, 피트니스센터 등 각종 부대시설이 훌륭하다.
비고	상기 요율은 2022년 무역관 특별 요율이며, 투숙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아울러 무료 공항 셔틀을 운영하고 있어 사전 예약 시 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 게스트하우스
없음.

사. 치안

치안상황

여행경보단계: 코로나 19 이후 여행 자제 지역으로 분류되어있음

*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7

Antigua시 및 Tikal 마야 유적지 등 유명 관광지를 제외하면 과테말라의 치안은 악화돼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초행자이거나 현지 거주자든 누구를 불문하고 주간이든 야간이든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시골여행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습격이나 강탈을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2016년 2월 미국대사관은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자국민 대상으로 Sacatepequez 주에 위치한 Volcan de Agua 등산 시 강도사건에 주의할 것을 공지했고, 실제로 2017년 5월 24일 독일인 관광객 부부가 등반 중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총기 강도 사건이 빈번히 일어났다. 또한 2016년 7월 엘살바도르에서 여행 온 가족이 Escuintla 근처에서 4인조 무장강도에게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재래식 시장이나 구도심 지역, 신호대기 상황이나 차량정체 시 2인조 혹은 4인조 오토바이 무장강도의 습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여행 시 귀중품을 다수 소지하거나 달러화를 다량 소지하는 등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시내 이동 시는 호텔에서 주선해 준 택시를 이용하되 시외, 시내버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주택도 공동거주주택은 경비원이 상주하므로 안전한 편이나 단독주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렌터카로 여행시도 야간이동은 가급적 삼가야 하며 현지인 동행 또는 안내인이 동승하는 것이 안전하다.

과테말라시청은 자체 통계를 통해 차량 권총강도 빈발 지역을 수시로 발표하는데, 대부분이 시내 주요 간선도로 또는 간선도로와 연결되

는 지선도로이며, 차량 통행이 많아 서행 중이거나 신호 대기 중일 때가 가장 취약하다는 점을 항상 숙지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 과테말라시티 내 차량 권총강도 빈발지역
 - 14 Avenida y Calzada Roosevelt, Zona 11
 - Carril Auxiliar en Villa Linda, cruce al Bulevar Tulam Tzu, Zona 7
 - 1 Avenida y 7 Calle, Zona 7, frente a Estadio del Trebol
 - 12 Calle y 3 Avenida, Zona 9
 - Bulevar Los Proceres y 11 Avenida, Zona 10
 - Avenida de los Arboles, saliendo de la Calle del Puente de la Asuncion
 - 2 Calle de la Colonia Utatlan, Zona 11, de la 39 a la 30 Avenida
 - 24 Calle y Avenida Bolivar, Zona 1

과테말라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위험지도를 보면 과테말라시티의 경우 부촌으로 분류되는 ZONA 14와 ZONA 15가 그나마 양호한 것으로 보이거나 과거에 비해 악화되고 있고 사실상 시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와 제한조치에는 범죄사건도 감소하였으나, 2022년 마스크착용이 완화되는 등의 제한조치와 완화되면서, 살인사건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일간지 Prensa Libre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비야 누에바(Villa Nueva), 므스코(Mixco), 산미겔페타파(San Miguel Petapa) 등 수도권대부분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지방은 페텐(Peten), 이사발(Izabal), 사카파(Zacapa), 에스퀀틀라(Esquipula), 치킴울라(Chiquimula) 등이 특히 위험하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 가입률이 10% 내외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비보험 자가 많아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사후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강도로 돌변하는 경우도 많으니 경미한 추돌 상황이고 인기척이 드문 곳 또는 시간대에 있다면 사고 수습을 위해 하차하지 않고 즉시 현장을 탈출하는 것을 권장한다. 기타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가해자 및 피해자 측 모두 보험을 호출하여 지원을 받으려 한다. 교통이 혼잡한 곳이라면 현장의 모습을 상세히 촬영한 후 길가로 차량을 이동시켜 대기하되, 노상강도 등 2차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차량 내에서 대기한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 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분실사유서 작성
-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의 경우, 5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4~6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7달러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3) 응급상황 시

국번 없이 125 또는 128을 누르면 구급차를 부를 수 있다. 병원엔 개인 의원 중에도 외국인을 전문으로 상대하는 의료진이 있으며 종합병원으로는 AURORA, HERRERA, PILAR, CENTRO MEDICO 등이 있다. 대체로 상류층 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의료수가가 매우 높은 편이나 신뢰도는 떨어지는 편이다(예: 간단한 종기 수술비가 1,000달러 내외로 청구됨). 민간 의료보험은 본인 부담이 진료 건당

20~30%이며 지급방식은 본인이 100% 결제 후 영수증 청구를 통한 환불 혹은 민간 의료보험에 알리고 허락을 받고 건당 20~30%를 진료 시 지불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국민건강보험(IGSS)은 서비스의 불만족, 기타 서류문제 등의 이유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간단한 두통, 소화제, 감기약 정도는 처방전이 없이도 가까운 약국(Farmacia)에서 구입 가능하며 의약품 수준은 신뢰할 수 있는 편이다. 감기약, 해열제, 두통약은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나 10~30달러 정도로 비싼 편이며, 호텔 투숙 시는 호텔에서 구급약을 지원받거나 리셉션 데스크에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만약 총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중증 외상병원으로 바로 이송 조치하는 것이 좋다.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신뢰도는 민영 병원이 우세하나, 총상에 따른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면 HOSPITAL ROOSEVELT(+502-2321-7400)나 HOSPITAL SAN JUAN DE DIOS(+502-2321-9191)와 같은 대형 국립병원이 나올 수 있다.

9.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주거를 물색할 때는 현지 부동산 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소개료는 임대인이 첫 달치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임차인은 내지 않는다. 대체로 여러 곳의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충분히 살펴본 후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정한다. 월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평균 700~1,800달러 정도이나 최근 공공치안 악화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치안이 안전한 지역의 ZONA 14(14 지역)의 고급 아파트는 2,000달러를 훨씬 넘는 경우도 많다. 과테말라 시내에서 거주지역으로는 ZONA 14 지역과 ZONA 15 지역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이는 과테말라의 주요 비즈니스 허브인 ZONA 10 등과 가깝고 치안이 우수하며 주변 조경도 훌륭해 거주지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신축 건물이나 고급 단지의 경우 한인 또는 동양인 입주를 거부하는 곳이 제법 많다. 특히 집주인과는 합의를 봤더라도 입주자 대표나 관리사무소 차원에서 반대하여 막판에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므로 한인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낭패를 피하는 지름길이다.

가격은 다소 저렴한 ZONA 7, 9, 11, 13 등의 지역도 비교적 치안상태가 양호하고 조용한 곳도 있으므로 잘 판단해 선택한다. 다만 주택을 고를 때 유흥업소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 인접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이면 버스 정류장 앞 등도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또 한가지는 과테말라 시내 공항에서 비행기의 항로나 이착륙 루트에 위치한 주택은 소음이 굉장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ZONA 7에 대다수 한인식당 및 식료품점이 위치해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고급주택의 경우 자동차 차고(1가구당 1~2대)를 갖고 있으며 차고임차료는 주택임차료에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소 수준이 떨어지는 주택은 별도의 차고가 없어 거리에 주차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차고가 있고 경비원이 상주하는 주택을 구한다. FULL-FURNISHED 주택은 거의 없고 주방에 필요한 일부 가구(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만이 비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간혹 거실이나 침실 등에 가구를 갖춘 주택이 있으나 임차료를 더 비싸게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계약 시에 1명의 보증인(과테말라인 또는 현지거주 한국인)을 세워 함께 서명해야 하며 첫 달은 해당 월 임차료와 1개월 치 임차료에 해당하는 보증금(DEPOSITO)을 내야 한다. 보증금은 계약이 종료되면 미납 전화료, 전기료 등을 공제하고 집 내부 수리비를 공제한 후 돌려준다. 임차인은 주택을 임차 당시의 상태로 돌려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주 시에 벽의 못 구멍이나 흠집, 바닥의 하자 등을 꼼꼼히 확인해 미리 사진을 찍어두고 주인에게 통보해줄 필요가 있다. 계약 기간은 1년이 보통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2년 또는 3년 계약도 가능하다. 계약서는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 계약수수료로 1,200~1,800 케찰(160~240달러) 정도를 내야 한다.

주택 매매 및 거래에 많이 활용되는 웹사이트는 www.olx.com.gt, guatemala.inmobilia.com 등이 있다. 관심 매물을 찾고 기재된 부동산 또는 임대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협상하면 된다.

전화

최근에는 케이블TV, 인터넷과 결합된 유선전화 패키지가 대세이다. 통신사에 여권사본, 각종 공과금 영수증 사본,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인을 세우면 어렵지 않게 개설할 수 있다.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통신사로는 Telgua(CLARO), Comcel(TIGO) 등이 있다. 2019년 1월 Telgua가 Telefonica 과테말라를 인수하면서 실질적으로는 Comcel과 Telgua로 시장이 양분되었다.

휴대전화는 선불제와 후불제 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22년 5월 기준, Claro에서는 월 15G LTE 서비스(후불제)는 월 199케찰(약 26불) 수준에 계약할 수 있다.

전압/플러그

주파수는 60Hz로 한국과 같다. 가정용 전자제품의 전압은 110V로서 220V 제품은 변압기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산업용으로는 120, 240, 440V를 사용한다. 가끔 전압이 불안정해지므로 안정기 또는 UPS 사용이 보편적이다. 특히 우기가 되면 순간적인 단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대부분 건물이 비상 발전기를 즉시 가동하여 큰 불편은 없으나, 컴퓨터 등 상시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요구되는 기기들은 반드시 UPS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수

상수도를 처리, 공급하는 시 정부 산하 공기업(Empagua)이 있으나 많은 경우 주거 단지별로 지하수 관정을 뚫어 물을 끌어올리고 있고 따라서 수질 관리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수도물 내에는 석회질을 비롯한 각종 이물질이 많고 대장균 등 각종 병원균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도물은 끓여 먹는 경우를 포함하여 어떤 경우도 마시거나 조리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 보니 수도물을 정화해주는 가정용 정수기의 보급률이 높지 않고 병에 담긴 생수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일반적이다. 양치용 물도 수도물보다는 가급적 생수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식당에서는 대개 무료로 물을 제공하지만 병에 담긴 생수를 따로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과테말라에는 전 세계 주요 브랜드들이 모두 진출해 있어 기호에 맞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가 시장점유율 2~3위를 차지하는 등 한국산 차량의 인지도는 좋은 편이나, 중고차 감가율을 고려하면 여전히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가 강세이다. 전체 차량 수입 물량의 70~80% 중고차일 정도로 중고차 매매가 일반화되어 있어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수도를 벗어나면 도로포장 상태가 열악하고 도심 곳곳에도 파인 길이 많아 지상고가 낮은 세단보다는 SUV가 운행하기 훨씬 쉽다.

판매량 기준 5대 브랜드별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현대자동차: www.hyundai.com.gt
- 기아자동차: www.kia.com.gt
- 도요타자동차: www.toyota.com.gt
- 닛산자동차: www.nissan.com.gt
- 마쓰다 자동차: www.mazdaguatemala.com

주요 중고차 매매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www.gustavomolina.com(과테말라 최대 중고차 판매업체)
- cofalusados.com(도요타 정식 딜러가 운영하는 인증중고차 사이트)

신차, 중고차 모두 현지 금융과 연계하여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자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가급적 현금으로 일시불 납부하는 것이 권장된다.

안전이 우선시 되는 기업인, 금융인, 국제기구/대사관 차량은 방탄 개조차량이 널리 쓰인다. 통상 제조사에서 방탄 개조된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는 BMW 등 일부 고급차량에 국한되고 대부분은 현지에서 별도로 개조하는 과정을 거친다. 과테말라 현지에 약 30여 개의 개조업체가 성업 중이나, 영세 업체의 경우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고 사후 지원이 안 되므로 비싸더라도 상급 개조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현지에 평이 좋은 개조업체는 GO ARMOR(과테말라 최대 보안기업 GRUPO GOLAN 자회사), GRUPO SIS 등이 있다. 45구경 리볼버 권총을 방어할 수 있는 NIJ III 등급이 권장되는 최소 방호 수준이며, 개조 비용은 중형 SUV 기준 25,000-27,000달러 선이다.

차량가격

아반떼는 보급형 GL등급 기준 20,000달러 선, 산타페는 31,000달러(보급형 GL 등급) 선이면 구할 수 있다. 한국과 비교한 체감 가격은 보급형 브랜드/차량의 경우 한국보다 다소 비싸고, 고급브랜드/차량은 반대로 한국보다 다소 저렴하다고 보면 된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에서 발급된 국제면허증이나 일반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과테말라 도착 후 90일간은 별도 허가 없이 운전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입국 소인이 날인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한-과테말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2015년 9월 16일 발효)에 따라서 한국 국민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면허증을 과테말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한국 운전면허증 스페인어 번역본 공증을 받고, 경찰청 교통국을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서한을 받게 된다. 이 서한을 가지고 아래 명시된 운전면허발급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시력검사를 진행하고 수수료를 지불한 뒤 면허를 받게 된다.

1) 교통국 제출용 구비서류

- 면허증 교환신청서(양식은 교통국에 비치, El Intercambio de Licencia Extranjera a Una Nacional)
- 신분증(DPI 또는 여권) 사본(여권은 전체페이지 사본 필요)
- 과테말라 이민국 발행 체류허가서류(비영주권자에 해당)
- 한국 발급 면허증 원본
- 한국 면허증 번역본(대사관 공증 필요)

2) 운전면허 발급기관

- 경찰청 교통국(Departamento de Transito de la Policia Nacion al Civil)
 - 과테말라의 운전면허 관련 총괄 기관. 외국인의 운전허가증, 운전면허 교환발급 신청업무 취급
 - 주소: Calzada Aguilar Bartres 34-70. Zona 11, Centro Comercial Galerias del Sur, 2do Nivel
- 운전면허발급 센터(MAYCOM: Centro de Emision Licencencia de Conducir)
 - 홈페이지 : <http://www.maycom.com.gt>
 - 실제로 면허증을 발급, 교부하는 민영기관(소요 시간 약 1시간)
 - Guatemala, Quetzaltenango, Zacapa 등 3개 도시에 동 센터가 있음
 - 업무시간: 8:00~13:00(월~토)
 - 2020년 4월 17일 이후 홈페이지와 전화(502-2421-0800)로 예약 시스템으로 변경됨(예약시간 20분 전에 필요서류와 예약증을 반드시 가지고 대기)

3) 운전 면허증 미소지자의 조치 방법

한국 운전면허증 미소지자는 내국인과 동일한 정규 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며 영주권이 필요하다. 운전면허가 없는 임시거주 비자를 가진 한국인은 허가된 운전학원에서 필기, 실기시험을 치른 후 경찰청 교통국에서 운전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적법한 운전면허증이 없이 운전 시 300 케찰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과테말라 금융감독원(SIB) 설립 이후 과테말라 소재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가급적 아래의 3대 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추천한다.

- BANCO INDUSTRIAL 은행
 - 과테말라 제1의 은행이며, 중남미 경제지 AMERICA ECONOMIA에서 중남미 최우수은행(11위)으로 선정된 바 있다
 - 한국의 수출입은행과는 2017년 4월 3천만 달러 규모의 전대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 BANCO DE DESARROLLO RURAL 은행
 - 과테말라 제2의 은행이다
- G&T CONTINENTAL
 - 과테말라 제3의 은행이다

계좌 개설방법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현지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여권과 약간의 예치금을 가지고 가서 계좌개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약 3~4일 이내에 과테말라 케찰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설 시 은행에 따라 다르나, 보통 500~2,000케찰(67~267달러)의 계좌개설 수수료를 받는다. 계좌가 개설되면 수표책을 발급받아 사용하며 별도로 신용/직불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신청 시 1명의 보증인을 요구한다. 개인 수표는 일부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신용카드는 대부분 별문제 없이 통용된다. 일부 매장(특히 약국)에서는 카드 결제 시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COLEGIO MAYA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커리큘럼	PRE-KINDERGARTEN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KINDERGARTEN : 10,804달러 ○ ELEMENTARY SCHOOL(K-5) : 16,059달러 ○ MIDDLE SCHOOL(6-8) : 16,785달러 ○ HIGH SCHOOL(9-11) : 16,997달러 ○ SENIOR(12) : 17,218달러 ○ 스쿨버스: 1,992 달러/년 ○ 입학금 : 7,500달러 (KINDER는 6,000달러 PRE-KINDER는 1,500달러)
홈페이지	http://www.cm.edu.gt
비고	1958년 설립된 국제학교이며, 한인 주재원을 포함하여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학교이다.

○ EQUITY AMERICAN SCHOOL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	--------

커리큘럼	PRE-KINDERGARTEN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KINDERGARTEN : 약 7,200달러 ○ ELEMENTARY SCHOOL(K-5) : 약12,650달러 ○ MIDDLE SCHOOL(6-8) : 약13,680달러 ○ HIGH SCHOOL(9-11) : 약16,730달러 ○ SENIOR(12) : 약16,250달러 ○ 스쿨버스 1,350달러/년 ○ 입학금 : 7,500달러
홈페이지	http://www.equity.edu.gt
비고	텍사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EQUITY AMERICAN SCHOOLS 재단 산하 학교이며, 1988년 설립되었다.

○ VILLAGE SCHOOL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커리큘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LEMENTARY SCHOOL(1-5) : 약 4,081달러 ○ MIDDLE SCHOOL(6-8) : 약 4,628달러 ○ HIGH SCHOOL(9-12) : 약 4,986달러 ○ 기타 : 스쿨버스 1,370달러/년 ○ 입학금 : 약 371달러
홈페이지	http://village.edu.gt
비고	1993년에 설립된 현지 국제학교이다. 상기 2개 학교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 현지학교

○ COLEGIO AMERICANO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커리큘럼	PRE-KINDERGARTEN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KINDERGARTEN : 7,537달러 ○ ELEMENTARY SCHOOL(K-1) : 9,764달러 ○ ELEMENTARY SCHOOL(2-5) : 9,974달러 ○ MIDDLE SCHOOL(6-8) : 10,226달러 ○ HIGH SCHOOL(9-12) : 10,619달러 ○ 기타 : 스쿨버스 720 과테말라케찰/월(미화 환산 시 약 92달러/월) ○ 입학금 :등록 시 1회 납부 (PRE-KINDER, KINDER, ELEMENTARY) 3,880달러 (MIDDLE SCHOOL) 4,300달러 (HIGH SCHOOL) 4,800달러 * (미화 환산 시 적용환율) 1달러 = 7.65과테말라케찰 ○ 년등록비 : 6842달러
홈페이지	http://www.cag.edu.gt

비고	1945년에 설립된 현지 사립학교이다. 학비가 국제학교 이상으로 높고 학업성취도가 준수하여 일부 주재원 들 자녀들이 COLEGIO MAYA 대신 이 학교에 입학하기도 한다. 현지 엘리트 가문의 자녀들이 많이 입학하는 편이다.
----	---

◦ COLEGIO INTERAMERICANO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커리큘럼	PRE-KINDERGARTEN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E-KINDERGARTEN : 약 6,262달러 ◦ ELEMENTARY SCHOOL(K-5) : 약 6,282달러 ◦ MIDDLE SCHOOL(6-8) : 약 7,8537달러 ◦ HIGH SCHOOL(9-12) : 약 8,590달러 ◦ 기타 : 스쿨버스 약 961달러/년 ◦ 기부금 : 9,600-13,200 과테말라케찰(미화 환산 시 약 1,230-1,692달러) * (미화 환산 시 적용환율) 1달러 = 7.65 과테말라케찰
홈페이지	http://www.interamericano.edu.gt
비고	1970년에 설립된 현지 사립학교이다. COLEGIO AMERICANO 보다는 현지인 학생 비중이 더 많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마. 병원

◦ 박상민의원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36 Ave. 1-74, Centro Comercial Mateo Xpress, Zona 7, Guatemala
전화번호	+502) 2439-8225
진료과목	가정의학과
비고	한인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이며, 한인 타운 내에 위치해 있다.

◦ CENTRO MEDICO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6A Ave. 3-47, Zona 10, Guatemala
전화번호	+502) 2279-4949
진료과목	종합병원(정신과,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외상외과, 방사선과 등)
비고	1949년에 설립된 과테말라 제1의 민간종합병원이다. 5개 수술실, 74개 병상, 재활병동, 신생아 인큐베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

○ HOSPITAL HERRERA LLERANDI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6a. Avenida 8-71, Zona 10, Guatemala
전화번호	+502) 2384-5959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1966년에 설립된 민간종합병원으로, 5개 수술실, 70개 병상, 내시경실, 혈액투석실, 분석실 등을 보유하고 있다. 카테터술, 전기생리학 분야는 중미지역에서 가장 현대화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격 의료 서비스도 개시하였다.

○ HOSPITAL GENERAL SAN JUAN DE DIOS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1ra. Avenida 10-50 Zona 1, Guatemala
전화번호	+502) 2321-9191
진료과목	종합병원
비고	1667년 최초 개원하여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큰 국립병원으로, 보건부(MSPAS) 산하 최대 규모 병원이다. 1,000여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아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모든 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 OAKLAND MALL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Diagonal 6, 13-01 Zona 10,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oaklandmall.com.gt
비고	과테말라시티 내 번화가이자 부촌인 Zona 10 내에 위치해 있는 쇼핑몰로, 영화관 및 고급 식당가를 두루 갖추고 있다.

○ LAS MAJADAS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Anillo Periferico 27 Avenida 6-40, Zona 11,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majadas.com

비고	넓은 부지에 대단위 쇼핑센터 및 식당가가 입주해 있으며, 한인 타운과 가까이 위치해 있다.
----	--

○ PASEO CAYALA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BULEVAR RAFAEL LANDIVAR 10-05, ZONA 16,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cayala.com.gt
비고	가장 최근에 개발된 대단위 주상복합단지이며, 인근에는 과테말라 명문대학인 RAFAEL LANDIVAR대학이 위치해 있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 식품점

○ 로데오마켓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37 Ave. 2-15, Zona 7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잡화 일체
비고	한인 타운을 포함하여 과테말라시티 내에 3개점을 운영하고 있다.(+502-3090-0101)

○ 샤인코리아/샤인베이커리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2 Calle 34-15, Zona 7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및 한국식 빵 판매
비고	한인 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다.(+502-2439-7176)

○ 해피마트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Boulevard Liberacion 4-11 Zona 9 Loca1, Plaza Asadis, Guatemala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잡화 일체
비고	Zona 10/14 등 중심가, LA AURORA 국제 공항에 가까이에 있으며, 한인 타운 내 그린 마트(2433-9651)와 함께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2362-3475)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 기타 편의시설

○ 린다뷰티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16 Calle 3-54 Zona 14, Guatemala
소개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2020년 11월 Zona 14로 이전하여 이전에 비해 출장자들에게는 접근성이 좋아졌다.(3034-2131)
비고	매주 화요일 휴무, 이용전 예약 문의 필수

○ 클럽 로스 델피네스(CLUB LOS DELFINES)

도시명	과테말라시티
주소	9 Calle 20-81, Zona14,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delfinesguatemala.com
소개	테니스코트, 피트니스센터, 아동 수영장 등을 완비한 스포츠센터이다.
비고	실내 수영장을 갖추고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수영을 즐길 수 있다.

○ 알타비스타 골프장(ALTA VISTA GOLF Y TENNIS CLUB)

도시명	산호세삐눌라(San Jose Pinula)
주소	Carretera a San Jose Pinula Km. 27 Ruta Nacional 18, San Jose Pinula, Guatemala
홈페이지	http://www.altavistagolf.com.gt
소개	과테말라시티에서 30-40분 내외 떨어져 있는 근교 골프장이다.
비고	근교에 있어 방문이 편하고 한인 교포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골프장 중 하나이다.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시작일	종료일
신정	2023-01-01	2023-01-01
부활절	2023-04-06	2023-04-06
부활절	2023-04-07	2023-04-07
부활절	2023-04-08	2023-04-08
노동절	2023-05-01	2023-05-01
부활절	2023-04-08	2023-04-06
독립기념일	2023-09-15	2023-09-15

혁명 기념일	2023-10-20	2023-10-20
만성절	2023-11-01	2023-11-01
크리스마스	2023-12-25	2023-12-25
국군의 날	2023-07-03	2023-07-03

<자료원 :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체 조사>

10. KOTRA 무역관 안내

○ 과테말라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13 Calle 3-40, Zona 10, Edifi. Atlantis, Of.605, Guatemala City, Guatemala
- 전화: +502) 2298-0000
- 대표 이메일: kotraguate@gmail.com
-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BC/guatemala>
- 참고사항: 과테말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우편 서비스가 2020년 9월 3년 만에 서비스를 재개하였으나 아직 정상화되지 않아, 배달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DHL, FEDEX, UPS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기존 일반 우편으로 보낸 분실물은 중간에 유실되거나 수개월 심지어는 수년이 지나서야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역관으로 보낼 경우 반드시 'Oficina Comercial de la Embajada de la Republica de Corea(한국대사관 상무관실)'를 함께 적어야 불합리한 과세, 배달 사고 등 발생 시에 비교적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공항-무역관 이동

KOTRA 과테말라 무역관은 과테말라시티 ZONA 10(제10구역)에 소재한 아틀란티스빌딩(Edificio ATLANTIS)에 입주해 있다(6층 605호). 과테말라 관문공항인 LA AURORA 국제공항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 체증이 없는 경우 무역관까지는 15~20분가량 소요된다.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은 관계로 공항에서의 이동은 공항 택시(AirporTaxi)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항에서 무역관까지의 요금은 공항 택시의 경우 75케찰(10달러 정도)이며, 우버는 45케찰(6~7달러 정도) 소요된다. 일반 택시도 있지만, 치안이 불안한 관계로 추천하지 않는다. 무역관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Westin Camino Real, Intercontinental, Holiday Inn, Radisson, Clarion Suite 호텔이 위치해 있다. 특히 엘살바도르/온두라스행 고속버스(Pullmantur)가 Holiday Inn에 출/도착 터미널을 운영하므로, 이후 육로를 통해 인근국으로 이동하려는 방문객은 해당 호텔에 투숙하는 것을 권장한다.

무역관 입주 건물은 로비 리셉션에 신분증을 제시한 후 출입증을 받아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무역관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방문객은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아울러 방문 전에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무역관과 방문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좋다. 사전에 열린 무역관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선 인터넷을 비롯하여 인쇄/복사기 등 사무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무역관을 바이어와의 미팅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